

6월 Market Index			
코스피	2563.51	코스닥	743.31
	(-13.37)		(-8.50)
금리 (미국 9년)	2.960	환율	1395.75
	(+0.042)		(+17.15)

혁신 저해 안전제일주의 팽배... ‘소통의 벽’ 제거해야

위기의 삼성, 골든타임 잡아라

〈中〉 혁신은 내부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 위에서 위협부담이 크다며 핀잔을 주는데 어떻게 앞서 나갑니까?”

삼성전자가 경직된 사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신청 받고 대대적인 조직 쇄신에 나선다. 그러나 내부 인력들은 더 근본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안전주의와 보고를 위한 회의, 보고서 작성으로 점철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6일 〈메트로경제〉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삼성전자가 CL4 이상 인사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것과 동시에 통상 12월 진행하던 사장단·임원 인사를 11월 중 진행한다.

삼성, 조직개편 위해 희망퇴직
고령화 심화·인력적체 지적에

“단순한 인력 감축만으로 한계
이미 떠날 사람은 다 떠났다”

삼성전자가 예년 보다 이른 인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처절한 현실이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 사장과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 박용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을 선임한 바 있다. 올해는 앞서 DS 부문 수장을 2022년부터 DS 부문장을 맡아온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으로 바꾸는 원포인트 인사를 진행했다.

찾은 인사교체에도 이번 3분기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의 실적 부진을 주요인으로 어닝쇼크(Earning Shock, 예상치 보다 낮은 실적)를 빚어 결국 임원 사과까지 발표했다. 전영현 DS 부문 부문장(부회장)은 지난달 8일 3분기 잠정실적이 발표된 후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로 기술경쟁력과 회사 앞날에까지 걱정을 끼쳤다”며 “근원적 경쟁력 회복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CEO가 실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분기 어닝쇼크를 전후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전 부문장은 지난 1일부터 취임 이래 첫 DS 소속 임원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전자의 근원적 경쟁력 회복을 위한 소통 강화와 쇄신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 됐다. 전 부회장은 지난 8

월 사내 공식 메시지에서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부서 간 소통의 벽’,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희망치만 반영된 비현실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문화 확산’ 등을 꼽으며 토론 문화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전 부문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내 분위기는 다소 암울하다. 사내 구성원들이 지적한 고위직 인력적체로 시작한 CL4(8년차 이상) 이상 희망퇴직 신청 개시에도 별 기대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내 구성원의 현 연령대 구성은 경쟁사 등과 비교해도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9월 발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20대 임직원 수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2021년 8만9897명에 달하던 20대 직원 수는 지난해 7만2525명으로 1만7372명(19.3%)이나 줄었다. 20대 비중이 33.7%에서 27.1%로 하락했다. 반면 40대 이상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구성원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내 고령화 분위기를 두고 대졸 공채를 통해 입사 해 9년째 근무 중인 A씨는 “이미 떠날 사람은 다 떠났다”고 지적했다. 부서별로 다르나 CL2(5년차 이하)까지도 비공식적으로 희망퇴직이 가능한 상황으로 고령화와 인력 적체에 대한 해결 보다는 사실상 인력 다이어트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희망퇴직 또는 자진사퇴한 유망한 임직원들은 경쟁사로 모두 떠났다는 증언을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9월 현재 기준 엔비디아 내 3만 명의 직원 중 약 400~500명 가량이 삼성전자 출신이다.

B씨는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번의 실패와 도전 속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지만 현재 삼성은 실패를 용납하지 못한다”며 “안전제일주의와 보신주의가 상부에 팽배한 현 상황 속에서 단순히 희망퇴직만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영입한 세바스찬 승(승현준) 전 삼성리서치 글로벌연구·개발(R&D) 담당 사장(소장)도 보수적인 사내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난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기반 사업 환경에서는 나 혼자 잘해서는 안 되며 생태계 내에서 협력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조직 문화, 기업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내부 유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 이 생태계를 빠르게 조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미국 동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AP/뉴시스

트럼프 ‘승리’ 선언... 경합주 모두 우세

2024 미국의 선택

최대 격전지 3곳서 연달아 승리
트럼프 후보, 당선 유력 소식에
“역사상 본 적 없는 정치적 승리”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사실상 당선을 확실시했다. 트럼프 후보는 7개 핵심 경합주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예상됐던 펜실베이니아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에서 이기며 일찌감치 승기를 거머쥐었다. 나머지 경합주 5곳도 우세를 보이자 트럼프 후보는 조기 승리선언을 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 현지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선거인단 수가 각각 16명씩 걸린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 19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연달아 승리했다. 〈관련기사 2·3면〉

보수 성향 매체 폭스뉴스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 270명 이상을 확보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앞다퉀 보도했다.

트럼프의 당선 유력 소식이 전해지

자 트럼프 후보는 6일 밤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컨벤션센터로 이동해 지지자들 앞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정치적 승리”라며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 과정을 “사상 최고의 정치 운동”이라고 언급한 뒤 “재임 이후 바이든·해리스 4년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귀환으로 미국이 황금기를 맞게 되리라며 대표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도 외쳤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개표 과정에서 선벨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일찌감치 승리하며 승기를 잡았다. 이후 러스트벨트 대표 경합주이자 19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펜실베이니아를 쥐며 승리의 기반을 굳혔다.

이미 외신들 사이에서는 미 대선 개표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0시 50분 기준 대선 승자 예측 결과 트럼프의 승률이 95%에 달하며 당선 가능성에 대

해 매우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1시 57분 현재 집계한 확보 선거인단 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 248명,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214명이었다. 뉴욕타임스는 펜실베이니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95%로 내다봤다.

트럼프가 예상대로 알래스카주의 3명의 선거인단까지 확보하면 ‘매직 넘버’인 270명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확정짓게 된다. 알래스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를 보여온 지역이다.

이외에도 위스콘신과 네바다, 미시간, 애리조나 등 다른 경합주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미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50개 주에 배정된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해리스 후보는 이날 따로 연설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해리스 후보는 자신 모교인 하워드대에서 지지자들과 선거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었으나, 패색이 짙어지자 현장에 모인 인파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원승일 기자 won@



▲금투세 폐지 후폭풍에... 민주당 “올해 안에
상법 개정 반드시 추진”
▲나경원 “인구·기후위기 대응 실천적
대안 찾겠다”... 총서 발간 /사진 뉴시스

▲딥페이크 대응 강화... 범죄수익 몰수·
위장수사 확대·영상 ‘先차단 後심의’
▲민주당 황정아 “9일은 국민 행동의 날...
윤 특검 수용해야”



▲이재명 “정부·여당 상법개정 반대 회한...
...흠치는 걸 허용하지는 거나” /사진 뉴시스
▲민주당, 윤 대국민담화에 “특검 입장 못
밝힐 회견이라면 철회해야” 압박

‘트럼프 2기’ 尹 가치외교 급변… 북·러 관계 계산법 복잡

‘자국 우선주의’ 지향 행정부 예상
尹 가치외교서 미국 중심축 빠지고
한미 SMA 재협상 요구 가능성 커
우크라 파병 北, 美 협조 어려울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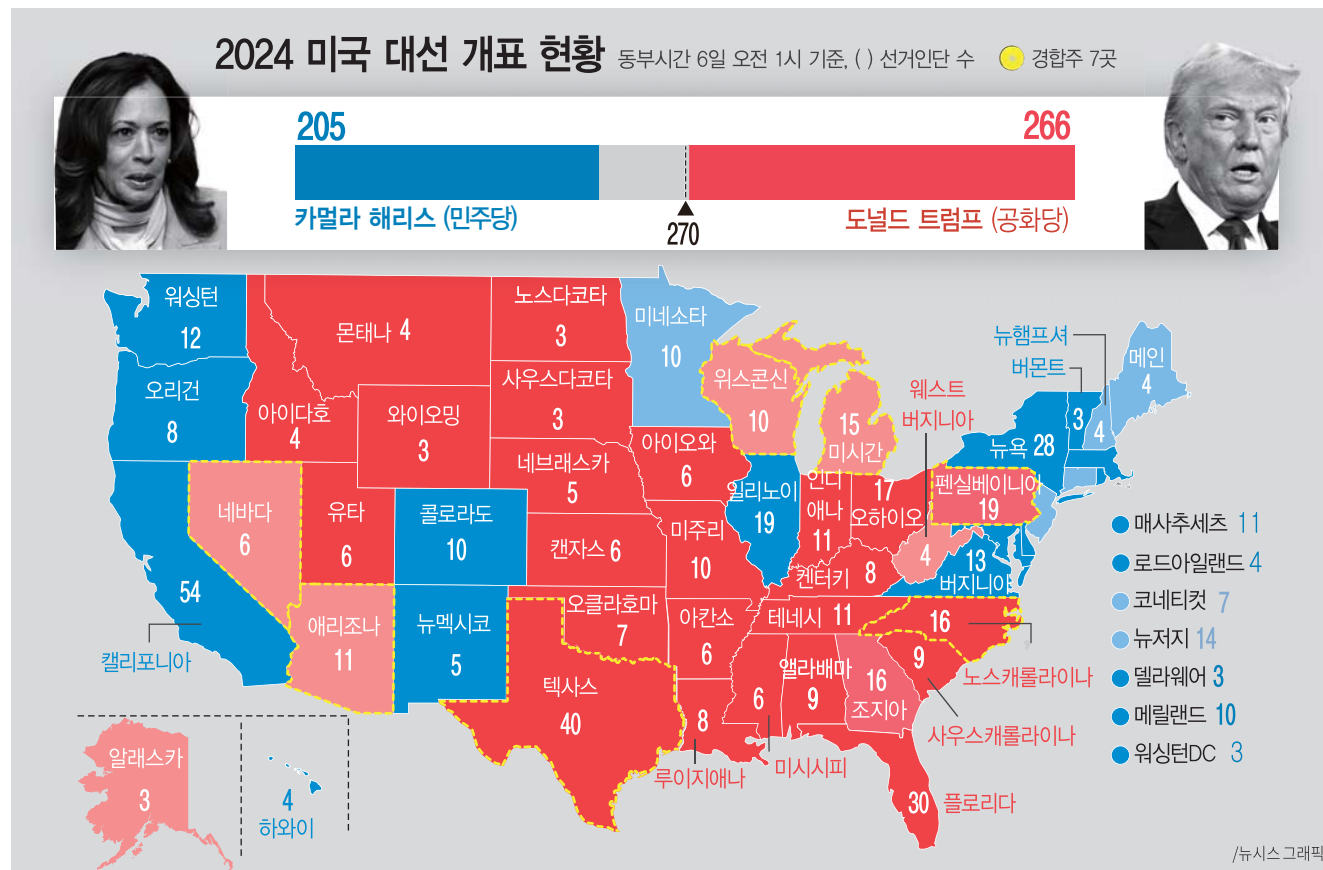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북미정상회담을 이뤄냈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동맹에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에는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 대선 개표 중계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오후 3시30분(한국시간) 기준으로 ‘매직 넘버’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주요 경합주에서 패배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사실상 가시화된 셈이다.

◆尹정부 ‘가치 외교’, 미국이라는 ‘중심축’ 빠질 수도

정치권 및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향한 1기 행정부에 비해, 자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이들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존 세계질서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과 일본, 그리고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와 밀착하는 ‘가치 외교’를 표방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및 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확장했다는 것을 성과로 꼽고 있다. 미국 역시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 여러 동맹국 간 협력을 중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르다.



그는 다자주의가 아니라 일방주의 외교를 선호한다. 또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며, ‘미국이 얻을 경제적인 이득’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라는 중심축이 빠진 ‘가치 외교’를 진행해야 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를 언급하며 유럽의 방위비 인상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 외교방식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소요하기 때문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은 유럽만 향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초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을 타결했다. 2026년 총액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원으로, 유효기간은 5년(2026~2030년)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SMA 재협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재임 당시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4조 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SMA를 여러 차례 재협상하려는 전력이 있다.

◆북한·러시아에 대한尹정부 입장과 배치될 가능성 ↑

아울러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 미 행정부의 행동방식을 버릴 가능성이 높기에, 러시아에 우호적인 기조를 이어가며 한반도에서의 한미공조 양상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다음 스텝도 복잡해진다.

우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정상 간 직접 대화를 나누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다.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리기도 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일화를 적극 언급하며 자신의 외교 능력을 강조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비판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 북한에 강경한 대응을 하길 원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그간 한미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북핵 억제력을 강화했지만, 이제는 ‘가치 외교’를 축으로 한 대북 압박의 균열이 예상된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본인이 당선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도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해 온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축소할 우려도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으로는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美 연방상원의원 선거 공화당이 다수당 탈환 워싱턴 권력균형 변화

2024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선 승리’ 선언한 가운데,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끌어왔던 의제들은 후퇴하고, 트럼프 후보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방해 없이 추진되는 등 워싱턴 권력 균형이 크게 바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에서 우위를 점하며 전체 100석 가운데 최소 51석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상원 다수당을 내준 후 4년 만에 탈환이다. 현재 상원은 친(親)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을 포함해 51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최소 2년 간 친(親) 트럼프적인 정책 의제를 ‘방해 없이’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CNN은 “(공화당 다수의) 새로운 상원은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그의 의제를 지지하고, 그가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보수주의자들과 함께 트럼프 후보의 대대적인 사법부 개편을 재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후보는 관세 부과 및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세금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마가’(MAGA) 운동을 정책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원승일 기자 won@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고창



고창읍성

동맹국 10% 보편관세 전망… 한미 FTA 재부각 가능성

트럼프, 자국 중심 보호무역 강조
韓, 연간 수출 감소 448억불 전망
“국가 간 긴장·위협 높아질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하면서 미국 보호무역의 색채가 한층 더 짙어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인 444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는 유세 도중 한국에 대해 ‘미국 시장을 착취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비난한 바 있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관세 인상에 나설 경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우리 수출 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보편적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연간 수출액 감소가 최대 44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는 실제로 동맹국에 10%에 달하는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또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최대 20%,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자국 기업을 상대로는 법인세 인하를 공약하고 있다. 1기 집권 시 21%까지 내린 것에 더해 15%까지 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하하겠다는 목표다. 이같이 관세 인상 및 국내 감세의 동시 추진을 통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게 트럼프가 내건 경제정책의 주요 골격이다.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는 “외국 기업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대미 무역흑자는 1~9월 누적기준 399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2023년도에 기록한 역대 최대(444억달러)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난달 하순 트럼프는 한팻캐스트에 출연해 “그(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거래는 정말 형편없다”며 “우리가 부유한 기업들을 위해 수십 억 달러를 내놓

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에 대한 지적이다.

트럼프는 이들 기업에 보조금 대신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노골적으로 반복해서 부각시킬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특히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포함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 측에 양보를 압박했었다.

우리 경제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무역 압박이 다시 가해질 경우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KATA)는 올해 초 펴낸 보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위치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진단한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누가 되든 자국우선주의는 같았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인 이 같은 자국우선주의 과정을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봤다. 이어 “그 과정에서 글로벌 교역은 정체되고, 국가 간 군사적 긴장과 위협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역 중심의 한국 경제와 기업들 입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치명적”이라고 했다. 또 “수혜자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와 덜 피해자만 있게 될 공산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방산·금융株 급등… 2차전지·신재생에너지 ‘와르르’

트럼프 행정부, 친환경 정책 후퇴 가능성
아시아 증시 희비… 韓·中 하락, 日 상승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트럼프 수혜주인 방산·금융 종목 등은 급등세를 보인 반면,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인 2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은 일제히 무너졌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원전·방산 관련주인 두산에너지빌리티와 한화시스템은 이날 각각 2.45%, 6.27%씩 올랐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후보는 화석 연료 등 전통적인 에너지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어 방산, 석유·화학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7.02%), 포스코홀딩스(-5.01%), 삼성SDI(-5.98%), 포스코퓨처엠(-8.26%), 에코프로(-7.61%), 에코프로비엠(-8.63%) 등 2차전지주는 급락세를 보였다.

2차전지주는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으로 카말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78.6원)보다 17.6원 오른 1396.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조한 만큼 수혜주로 떠올랐다. 지난 4일에는 해리스 후보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당일 에코프로비엠은 7.25%, 에코프로는 7.37% 급등하는 등 코스닥내 대표종목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다만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 반전되는 모습이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95% 이상에 달한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트럼

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친환경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후변화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자력은 24시간 내내 전력 공급이 가능한 데다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지지를 확보한 만큼 한동안 원전 테마 상승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트럼프 트레이드’로 꼽히는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는 KB금융(3.30%), 신한지주

(3.32%) 등 금융 종목들은 살아남은 모습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됐다”며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주와 금리 상승을 반영한 금융주 강세가 두드러지고, 해리스 기대주로 부각된 2차전지와 신재생 에너지주는 낙폭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이 수혜를 입을 것”며 “규제 리스크가 낮아지면 금융·결제 기업도 가상자산 시장 진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트럼프 대선 승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아시아 증시의 희비도 갈렸다. 국내증시는 전 거래일보다 0.52%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중국 및 홍콩 증시도 트럼프 유력 소식에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했다. 반면, 일본증시에서 닛케이 225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1% 상승하고, 대만 가관지수도 전장보다 0.48% 올랐다. /신하은 기자 godhe@



앤디 김 하원의원 겸 민주당 후보가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뉴시스

한국계 앤디 김 상원의원 당선

미국 뉴저지주(州)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앤디 김 하원의원 겸 민주당 후보가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당선됐다. 지금까지 한국계 하원의원은 여러 명 있었지만, 상원의원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5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김 하원의원은 이날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커티스 배쇼 후보를 꺾고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앤디 김은 1982년생으로 42세의 젊은 나이로 상원의원까지 올랐다.

뉴저지에서 태어난 그는 시카고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뒤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다.

앤디 김은 지난 달 6일 열렸던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배쇼가 자신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낸 뒤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그를 부축해 유권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한 유권자는 “뽀뽀하는 행동을 보여줬다”, “예의 바른 경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원승일 기자 won@

비트코인 최고가 행진… 상승폭 이목집중

트럼프, 미국 ‘암호화폐 수도’ 강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6일 가상자산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일 대비 11% 상승한 7만5200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12시(정오)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최

고가를 재차 경신하고 있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 3월 14일 기록한 7만3750달러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는 1억382만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다. 원화 기준 종전 최고가는 1억500만원으로 120만원도 남지 않았다.

이날 폭등 원인은 천가상화폐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규제 완화와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촉진을 약속하며,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Never sell your bitcoin)는 발언과 함께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금으로 삼아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고정형 주담대, 금리 변동기 맞춰 대출 갈아타기 노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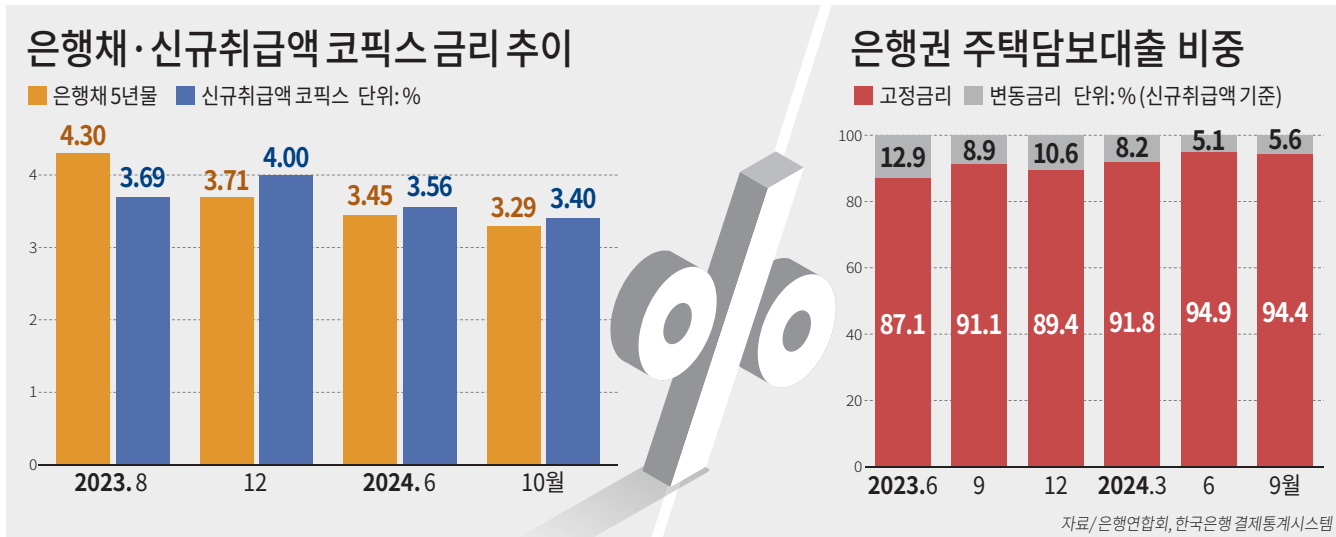
韓 경제의 뒷

〈中〉 부동산 쏠린 자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에 부담 가장
지표금리와 가산금리 간 괴리 커
대출금리 체감 인하 어려운 현실
대출자들 소비·상환 패턴 등 변화

#. 직장인 김모(37)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를 6억4000만 원에 사면서 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김씨가 매달 내는 원금과 이자는 180만원 정도. 김씨는 “당시 ‘고금리다 고금리다’하면서 연 4.75%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금리가 높다”며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아직까진 체감하기 어렵다. 물가가 오른 데다, 월 상환금도 여전히 높아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고정(혼합·주기)형 연 4.22~5.65%, 변동형 연 4.



77~6.47%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초 이들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가 연 4.42~5.61%, 변동형 금리가 연 4.42~5.7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고정형 금리는 상단기준 0.04% 포인트(p) 변동형 금리는 0.76%p 오른 셈이다.

문제는 주담대의 지표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는 은행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포함한 지표금리와 차주의 신용점수에

따른 예상 손실비용, 은행의 전산비용 등을 포함한 가산금리로 이뤄져 있다.

고정형 주담대의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은 ▲지난해 8월 말 4.301%에서 ▲12월 말 3.705% ▲올해 6월 말 3.451% ▲10월 말 3.292%로 떨어졌다.

변동형 주담대의 지표금리인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지난해 8월(공시일 기준) 3.69% ▲12월 4% ▲올해 6월 3.56% ▲10월 3.4%로 내렸다. 지표금리가 아닌 가산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

리가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한 은행의 금리가 낮아지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금리수준으로 인상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도 금리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해외 주요국 고정금리(10년 이상 고정) 주담대 비중은 2021년 기준 프랑스 97.4%, 독일 90.3%, 미국 85%다. 예상치 않게 금리가 급격히 인상할 경우 고정금리 비중이 많으면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 COS)에 따르면 대출 고정금리 비중(잔액기준)은 ▲2023년 6월 56% ▲9월 58.1% ▲12월 59.2% ▲올해 6월 63.4% ▲9월 65.7%로 상승했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2023년 6월 87.1% ▲9월 91.1% ▲12월 89.4% ▲올해 6월말 94.9% ▲9월말 94.4%다. 신규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대다수 고정금리로 받았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고정형 주담대는 5년간 금리를 고정한 뒤 6년째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1~2년 전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5년이 될 때까지 처음 받은 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인하 시기를 보고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건설투자 부진에 내수 회복 지연… 12개월째 연속 지속

KDI, ‘내수회복 지연’ 진단

반도체 설비투자 상승에도 난관 지적
상품소비 등 부진이 내수 회복 발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에도 내수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내수 회복에 제약이 있다는 KDI의 진단은 12개월째 지속됐다.

KDI는 6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IC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며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수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증가 폭이 기저효과 등으로 축소되었지만 ICT

품목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흐름은 지속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재고율이 하락하고 평균 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4.6% 증가하며 전월(7.5%) 대비 증가세가 주춤했다. 선박(-28.5%)과 석유제품(-34.9%)이 감소한 반면 ICT(28.4%)는 증가세를 지속했다. KDI는 “반도체 수출 물량의 증가세가 기저효과로 둔화하고는 있지만 수출 가격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대외 수요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설비투자 증가세에도 상품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는 게 KDI의 평가다. 이 보고서는 “반도체 설비투자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수출 호조세 영향이 내수 경기에 점차 반영될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반면 서비스 소비의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상품소비 감소세는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설 관련 선행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건설기성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건설업 경기가 위축된 모습”이라며 “물가 상승세도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KDI는 지난달 경제동향에서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상품소비는 최근 대다수 품목에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9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보다 2.2% 줄어 8월(-1.3%) 대비 나뉘었다. 승용차(2.1%)가 생산 차질 완화로 증가했지만 음식료품(-6.1%), 의복(-2.3%), 화장품(-10.2%) 등 품목에서 크게 줄었다. 건설투자는 건설수주와 주택착공 등 선행지표 개선에도 그간 수주가 부진했던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와 관련해선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낮게 유지되면서 다수 품목에서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된 가운데 석유류 가격이 대폭 하락하며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3%



지난달 31일 부산 신산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상승해 전월(1.6%)보다 낮았다. 변동성이 낮은 근원물가도 1.8%로 물가안정 목표(2%)를 밑돌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첨단산업 발전 견인… 1조2600억 글로벌 투자 유치 성공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막
“역대 최대 외투실적 달성 총력”

국가 대표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가 6일 서울에서 개막한다. 올해 글로벌 선도기업 7개사가 총 1조 2600억원(9.2억 달러) 규모 투자를 신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8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이하 IK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투자자와 국내외 유수 기업 등 20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신고식과 글로벌 지역본부 지정식, 컨퍼런스, 투자유치 상담회, 지자체 타운홀 미팅, 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부

타트업 포럼·상담회, 외신간담회 등이 진행된다.

산업부는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신고 252억달러)을

기록한 가운데, 이번 행사를 모멘텀 삼아 올해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실적 경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반도체 장비·자동차 부품·해상

풍력·물류 등 주요 산업 분야 7개 글로벌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신고식에서는 총 1조2600억원(9.2억달러) 규모 외국인투자 유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글로벌 첨단기업 2개사에 대한 글로벌 지역본부 지정식도 진행되는데, 이번 지정은 2015년 5개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지정에 이어 9년 만에 2개 기업이 신규 지정되는 것이다.

지역본부 유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첨단산업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PC·프린터 생산기업 휴렛 팩커드는 국내에서 글로벌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세계 1위 풍력터빈 기업인 베스타스는 풍력발전설비 거점을 국내에 구축, 국내 풍력산업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안덕근 산업부장관 축사를 시작으로 세계 최장수 바이오 기업인 머크의 카렌 매든 CTO와 얀센 AI 부위원장이 기초연설자로 나서고, 반도체(온세미·ASM), 바이오(사토리우스), 항공우주(보잉) 등 분야 주요 외투기업 대표가 한국의 투자환경을 진단하고 투자매력도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외국투자가 140여개사와 투자유치 희망 국내기업·기관 330여개사가 투자상담을 벌인다.

안덕근 장관은 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외국인투자자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외국인투자자와 함께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에너지로 채우다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성원해 주신 모든 분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모든 곳이
우리의 에너지로 채워질 때까지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 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어스온

SK 엔텀

한동훈·국민의힘 중진 간담회

“대통령 담화, 변화·쇄신 계기되길”

친한계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등
한동훈 대표 제안 담화에 담겨야”친윤계 “공개적 요구에 담화 퇴색
김 여사, 공적으로 해야 할 책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은 기대 섞인 우려가 나오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명대균 녹취록 파문 등을 결자해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경우 집권 후 반기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급히 마련한 회견이 ‘안하니만 못했다’라는 평을 받게 되면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이 저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것이 필요한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이다. 그 정도는 저는 담화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김건희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 인적 교체 및 쇄신 내각 구성,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여부에 대해 “한 대표가 말하는 중단은 전면적인 중단을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이 지금의 민심을 담아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현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진솔하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한다”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봐오면 해야 할 일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있을 때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오셨지 않나. 아마 이번 대국민 담화와 회견을 통해서 국민께서 궁금해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도 “바둑을 둘 때 아생연후살다(我生然後殺他·자신의 말이 산 다음에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야 한다는 뜻)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며 “당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오히려 공개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대국민 담화 같은 같은 것이 퇴색되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김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 요구에 대해서 “공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당연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활동의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국제 관례와 외교적으로 볼 때 당연히 참가해야 할 일

들이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빠지고 제한된다면 나라의 격이 무엇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6선 중진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경태 의원(6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윤상현·조배숙(5선) 의원이 참석했다. 한 대표와 중진의원들은 “내일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향후 이같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내일 담화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당정일체의 힘을 모아 다시 국정동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한 대표에게) 말씀 드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1兆 규모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2027년까지)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1조원 규모의 펀드를 통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 투자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며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정책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현

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각 시도지사에게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데 이어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6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들 6개 시도는 기업들과 총 33조8000억원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 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중앙부처들이 협업하는 지역 활성화 펀드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역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거쳐 지난 9월 법무부가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되는 것이므로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지방시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선진화 정책 등으로
주식시장 정상·활성화 총력”

韓 주식시장 활성화 TF 출범

이사 충실 의무확대 상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개혁 추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제시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 간사는 김남근 의원이 맡았다. 입법 추진 관련 상임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기획개정위원회 김영환,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운, 박근혜 의원이 TF 위원으로 참석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자였던 이소영 의원도 TF 위원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추후 위원이 추가로 합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는 법안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당론 법안을 성안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장기투자하는 소액주주를 외면한 채 물적분할, 백도어 상장(우회상장), 합병 등을 통해서 소수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다수의 소액주주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소주인에게 왜 송아지를 따로 떼어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지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굴이 회수를 넘으면 탕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반성과 모색

속에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그 모태가 일본에서 추진한 것인데, 일본의 정책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기업의 이익이 밖으로 넘어가 특정인에게 누수되는 것을 막고 책임을 추궁하는 지배구조 개혁이었다”며 “다른 하나는 관행의 개혁이었다. 기업이 다수의 투자자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의 축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지만 최근 내용이 다 삭제됐다. 결국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세금 감면하겠다는 것 밖에 없다”면서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현해탄을 넘으면 서 탕자가 됐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지배주주가 갖감 빼먹듯이 이익을 빼먹을 수 있지만 시스템은 이런 행태를 규율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주식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TF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오 의원은 구체적인 확대 범위에 대해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됐고 특정 법안이 논의된 바 있다”며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당론 법안은 정책위랑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지했으면 거래세는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주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증권거래세 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기재위를 통해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모니터링팀 파견, 국회 동의 불필요”

파병 북한군-우크라이나 교전설 부인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우리에게 요청한 전장 모니터링 파견은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러시아로 파병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 간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전장 모니터링팀’을 파견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66조2항에 따라서 국회 동의사항”이라면 “하지만 (모니터링팀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단위 파견은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수행에 의거하여 국방부 장관

의 정책결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정보기관이나 해당 부처에서 그 주제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팀을 이뤄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선 모니터링팀에 대해서는 아직 보낸다고 결정은 안했다”며 “우크라이나 측에서 누구를 특사로 보낼지, 어떤 안전과 의제를 준비해서 올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확정해오면 그때 공식적으로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북한군과 우크라이나 간 첫 교전이 있었다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한 대규모의 인원을 이미 서부 전선으로 이동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분명히 것은 러북군과 우크라이나의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약속 100호 어린이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희망이 처음 출발한
2019년 거제 1호 아주하나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열릴 때마다
아이들의 꿈도 자라나고

드디어 2024년 봉화 100호 석포하나어린이집에
웃음이 하나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그 날까지
하나금융그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지원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산단 직주근접 ‘아산 더샵 탕정’ 3차도 완판

일반분양 청약 경쟁률 16대 1
상반기 1, 2차 분양 모두 완판
기존 분양가에 프리미엄 붙여
3차 분양가 전용 84㎡ 5.3억

삼성디스플레이와 산업단지 등 일자리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아산 탕정이 청약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 분양권이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되면서 2차 분양가에 이어 3차 분양가는 더 큰 폭으로 올랐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서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의 일반분양 청약경쟁률은 16대 1로 집계됐다. 667세대 모집에 1만882명이 접수했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는 최고 35층, 총 1163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975세대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주변에 탕정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조감도.

이단지 등 직주근접 입지다.

앞서 4블록에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1차)가 올해 1월에, 3블록에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가 올해 5월에 분양을 진행에 모두 완판됐다. 3차는 2블록에 들어선다. 1차 1140세대, 2차 1214세대, 3차 1163세대 등 총 3517세대의 더샵 브랜드타운이 만들어지게 된다.

완판에 분양가는 오름세다.

1차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84㎡ 4억8010만원, 96㎡ 5억7110만원이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기 전이었지만 일반분양 646세대 모집에 3만3969명이 몰렸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52대 1에 달했다.

2차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70㎡ 4억1200만원, 84㎡ 4억9000만원이다. 84㎡ 기준으로 1차 대

비 1000만원 가량 올랐다.

일반분양에서 612세대 모집에 1만 9235건의 청약으로 모든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31대 1을 기록했으며, 84㎡A타입의 경우 78대 1에 달했다.

3차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70㎡ 4억2900만원, 84㎡ 5억2900만원으로 결정됐다. 84㎡ 기준으로 1차보다는 5000만원, 2차보다는 4000만원 가량 오른 수준이지만 이번에도 전 평형 1순위에서 청약이 마무리됐다. 앞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485세대 모집에 737건이 접수됐다.

1, 2차 분양권의 경우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아산 탕정은 비규제지역으로 전매제한이 없다.

84㎡ 기준으로 1차 분양권이 지난 9월 5억1230만원에 거래됐으며, 2차는 7월에 최고 5억2115만원에 실거래가 신고됐다. 분양가 거래에서 붙은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3차 분양가가 결정됐던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AI 스타트업 발굴 테크블레이즈 개최

신한카드가 유망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

신한카드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유망 AI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스타트업 공모전 ‘2024 스타트업 테크블레이즈(Startup TechBlaze)’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테크블레이즈는 지난 8월 신한카드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생성형 AI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체결한 전략적 업무 협약에 따른 공동 사업이다. 금융업에 특화된 생성형 AI (Gen AI) 기술을 신한카드 빅데이터 역량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신한카드의 AI 내재화를 위해 협업할 수 있는 제안이다.

KB국민카드

카카오 러피치 활용 KaPick 카드 출시

KB국민카드는 6일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KB국민카드 KaPick’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KB국민카드 KaPick은 러피치 디자인과 함께 다양한 가맹점에서 높은 할인 혜택을 자랑하는 특화 카드 상품이다. 온·오프라인 쇼핑과 통신, OTT, 영화 등 일상 생활 영역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쇼핑(옥션, G마켓, 11번가) 10% 청구 할인(KB Pay로 결제 시 5% 추가할인) ▲오프라인 쇼핑(롯데마트, 홈플러스, GS25 등 총 8곳) 5% 청구 할인 ▲이동통신 요금 자동납부 5% 청구 할인 ▲OTT 정기 결제 30% 청구 할인 ▲영화 20% 청구 할인 서비스를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3만8000원까지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NH농협카드

쌀, 9월 최다 구매 10kg 선호도 증가

NH농협카드가 쌀 소비현황을 분석했다.

NH농협카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가와 관련 산업에 쌀 소비 현황을 제공하고자 ‘소비트렌드 Insight 보고서 - 하나로마트 고객의 쌀 소비 현황’을 분석했다고 6일 밝혔다.

고객들은 쌀을 9월에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은 햅쌀의 판매가 시작되고 민족 명절인 추석이 속해 있다. 쌀 매출액과 이용고객 수는 지난 2021년 9월(361억원, 72만명)이 가장 많았다. 10kg의 쌀에 대한 선호가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쌀 구매고객의 절반 이상이 10kg 용량의 쌀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1인 가구의 증가, 가구당 인원 감소 등 사회적 변화를 꼽았다.

/김주형 기자 gh471@

카뱅, 3분기 누적 순익 ‘역대 최대’… 비이자수익 전인

대출비교·공모주청약 이용 늘어
가계대출 관리로 증가율 최소화

카카오뱅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이 355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 비교 서비스와 공모주 청약 서비스 등 플랫폼 이용이 늘며 수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카카오뱅크는 6일 실적발표를 통해 3분기 124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3분기 기준 누적 순이익은 3556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7.3% 늘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로 대출잔액 증가는 최소화하고 고객 활동성을 바탕으로 비이

자수익을 늘렸다”며 “대출비교플랫폼과 공모주 청약서비스, 국내·해외 주식투자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말 여·수신 잔액은 각각 54조3000억, 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수신 잔액은 전년 대비 8조 6000억원 넘게 늘어난 가운데 요구불예금이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2208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대출 비교 서비스, 투자 서비스 실적 성장에 힘입어 플랫폼 수익이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

신용대출 비교하기는 제휴사가 50여

개로 확대되면서 수익이 확대됐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하고 제휴 금융사의 대출을 실행한 건수는 8만건, 금액은 9995억원으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투자서비스 부문중 공모주 청약 서비스는 출시 3개월만에 이용자가 53만명을 넘어섰고, 국내·해외 주식투자 서비스 일평균 거래대금은 같은기간 32%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은 전분기 대비 800억원 증가했다. 적극적인 금융취약계층 대출 공급을 통해 목표치인 평잔 30% 이상을 달성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한 금액은 약 7300억원이다.

3분기 연체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0.48%를 유지하며 양호한 자산 건전성을 보였다. 순이자마진(NIM)은 2.15%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지난해 말 37.3%에서 34.9%로 개선됐다.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이달 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활동성(트래픽) 증가에 따른 수신의 확대는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을 보다 확대하고, 고객에게 첫 번째로 선택받는 금융 생활 필수 앱으로의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사회초년생 전용 대출상품 개발 나선다

BNK경남銀, 토스와 MOU 체결
토스스코어 이용 토스전용 대출

BNK경남은행은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와 ‘사회초년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 출시 등 전략적 사업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예경탁 BNK경남은행 은행장은 강남구 토스 본사를 방문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와 ‘사회초년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 출시 등 전략적 사업제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출시되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은 대안평가정보인 토스스코어를 이용한 토스 전용 대출 상품이다.

또한, 비대면 대출 신청 절차를 개선해 추가 앱 설치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왼쪽)과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바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향후에는 양 기관은 사회초년생 대상 상품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전문직군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토스 ‘대출 받기’ 서비스에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HDC현산 “서울원, 도시의 새 상징 될 것”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노원구에서 착공한 ‘서울원 프로젝트’의 개발 비전을 내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서울원 비전 선포식 ‘서울원, 미래를 향한 HDC의 첫걸음’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열린 비전 선포식에는 최익훈, 김희언, 조태제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익훈 대표이사는 “서울원은 도시의 새로운 상징이 되고 동북권 활성화를 시작으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원은 삶을 담은 거대한 원을 뜻한다. 반경 1km 안에서 일과 주거, 문화, 휴식이 연결되는 거대한 테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거공간부터 호텔, 쇼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서울원 프로젝트의 비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평몰까지 약 15만㎡에 서울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합용지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직접 운영하는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도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메리어트인터네셔널과 서울원 복합건물 내에 메리어트 호텔 도입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지원기자 jjw13@

항공업계, 3분기 연휴효과 ‘톡톡’ 中 무비자 등 여행수요 대응 박차

대한항공·제주항공 등 호실적 기록
中 단기 비자 면제… 신규취항 속도
징검다리 연휴 등 여행수요 증가 전망

국내 항공업계가 올해 3분기 황금연휴와 유가·환율 안정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2분기 고환율·고유가 등의 악재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항공업계가 3분기 기본 좋은 성적표를 내놓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만 형인 대한항공은 올해 3분기 매출액 4조2408억원, 영업이익은 61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 19% 증가한 수치다. 고환율·고유가 등 외부 악재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2분기와 달리 항공업계 성수기인 3분기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등으로 여객 수요 증가와 함께 실적 개선 효과를 기록했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3분기 여객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2조6173억원, 화물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1조1198억원을 기록했다. 전통적인 항공화물 비수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발 전자상거래 지속 성장이 수요를 견인하며 호실적 달성했다.

4분기에는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하반기부터 중국 노선 확장에 나선 대한항공은 다음 달 신규 취항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대한항공은 이달 중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상승세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LCC업계도 호실적을 기록하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갔다. 제주항공은 5일 지난 3분기 별도기준 매출액 460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올해 2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1% 감소한 395억원을, 순이익은 59% 증가한 431억원을 기록했다.

제주항공은 중단거리 노선에서의 견고한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성수기 여행 수요를 흡수한 것이 매출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기준 제주항공의 3분기 수송객 수는 332만4143명, 점유율은 14.2%로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중 1위다.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티웨이항공이 3분기 매출이 전 분기보다 26.2% 늘어난 4115억원, 영업이익은 전분기 215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진에어의 경우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617억원, 40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와 최대 9일의 황금연휴로 불린 추석 연휴 영향으로 3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며 “4분기에도 징검다리 연휴 등의 영향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 수요 증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김동관 부회장, 사우디 장관 회동 방위·경제분야 등 협력방안 모색

한화그룹 사우디 협력관계 고도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지난 4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과 만나 사우디의 국가발전전략인 ‘비전2030’의 안보 및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화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과 만나 사우디의 안보와 경제에 기여하고, 중동지역 안보 수요에도 공동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태양광 사업은 물론 방산 사업까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고 현지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 형성에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화는 지난 4일 김 부회장과 압둘라 장관이 중구 롯데호텔에서 만나 사우디의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의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의 경제 사절단의 일원으로 압둘라 장관을 처음 만난 이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왔다.

이날 만남에서 한화는 방산 분야 현 대화를 추진하는 국가방위부 측에 첨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4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과 만나 사우디의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의 안보 및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단 솔루션을 기반으로 현지화 및 공동 개발, MRO(유지·보수·정비) 등을 통해 안보와 경제 분야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압둘라 장관은 “사우디와 한화는 장기적인 전략적 관계를 가져가길 희망한다”며 “상호 협력을 통해 사우디를 넘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함께 방산·허브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한화의 협력은 2024년 사우디-한국간 공동 채택된 경제 및 안보협력의 미래 지향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사우디 국가전략과 중동지역의 평화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국내·외 3만명 구름인파… AI ‘교류의 장’ 도약

SK ‘AI 서밋 2024’ 폐막

HBM, 텔코LLM 등 이목집중
“미래 AI 시대 가속하는데 기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끈 ‘SK AI 서밋 2024’가 전 세계 인공지능(AI) 업계와 산·학·연 주요 인사들의 참여 속에 막을 내렸다.

SK그룹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 국내·외 AI 전문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 합산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최된 AI 심포지엄 중 역대 최대 규모다.

SK는 이번 서밋을 국제 행사로 격상해 정부·민간·학계의 AI 전문가들이 미래 AI 시대의 공존법과 AI 생태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행사 첫날 최태원 SK 회장은 약 50분 간 오프닝 세션을 주재하며 서밋을 이끌었다. 최 회장은 AI 미래를 가속



‘SK AI 서밋(SUMMIT)’ 전시장 전경. /SK

하기 위해 SK의 AI 역량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AI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MS, 엔비디아, TSMC 등 SK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빅테크 CEO들과 AI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대담 형식으로 연설을 진행했다.

국내·외 저명한 연사 30여명이 참석한 메인 세션 외에도 AI 기술 영역에 대한 100여개의 발표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SK는 국내 AI 유망 기업 연합인 ‘K-AI 얼라이언스’에 4개의 신

규기업(사운더블헬스·테크에이스·바이파이브·노타)을 포함해 총 19개사가 결집해 국내 AI 기술력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글로벌 진출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인들의 관심도 이어졌다. SK는 전시관에서 AI 인프라, AI 칩, AI 플랫폼, AI 서비스 등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기술이 적용된 50여개의 아이템을 선보였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액집 냉각 기술을 포함한 AIDC 설루션, 텔코 LLM 등을 관람하기 위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AWS), MS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전시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구글 클라우드의 AI 포토 카드 제작을 체험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줄을 서기도 했다.

SK그룹 관계자는 “향후 SK AI 서밋은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와 해법을 제시하는 AI 시대를 여는 협력의 장으로서 미래 AI 시대를 가속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에코프로에이치엔, 초평사업장 준공

이 이차전지 소재 및 반도체 소재로의 사업 다각화 기틀이 될 초평사업장을 준공했다. 6일 충북 진천군 초평 은암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초평사업장 준공식에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코프로에이치엔

LG전자, 차량용 AR 선행특허 ‘세종대왕상’

2024 특허기술상 시상식

AR 기반 모빌리티 SW 사업 확대

앞으로 종종 헛갈리는 내비게이션 안내도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LG 전자 차량용 AR 기술로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속 안내선만 따라가면 헛갈리지 않고 주행할 수 있다.

LG전자가 6일 특허청 주관으로 열린 2024년 특허기술상 시상식에서 ‘차량용 AR(증강현실) 선행 특허’로 대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했다.

특허기술상은 10년 내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중 매년 심사를 거쳐 국가산업 기술경쟁력 증진에 기여한 특허를 선정해 시상한다. LG전자의 ‘차량용 AR 선행 특허’는 2022년 국내와 해외에 동시 출원됐으며, AR로 다양한 주행 상황을 직관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특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차량 정보 및 경로 안내 등을 AR 기반의 3D 그래픽으로 표현한 AR UX(사용자경험, User Experience) 기술이다. AR 그래픽이 자유롭게 분리, 변형, 결합해 기존 방식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1/2 방향 및 속도, 오르막/내리막, 경로 탐색 상태, 차선 변경 등 다양한 UX 표현이 가능하다.

LG전자는 이 특허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R 솔루션을 기반으로 로열티 수익화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해 선행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SW)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IG넥스원-밥콧, MRO 시장 공략 맞손

〈유지·보수·정비〉

공급망 구축 등 협력활동 추진

LIG넥스원이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공략을 위해 밥콧 인터내셔널 그룹(이하 밥콧)과 손을잡았다.

LIG넥스원은 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유로나발 2024 전시회 현장에서 밥콧과 MRO 개발 및

협력을 위한 포괄적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식 LIG넥스원 PGM사업부문장과 마크 골드삭 밥콧 해외사업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LIG넥스원은 밥콧과의 협약을 통해 글로벌 MRO 시장 진출 및 확장,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활동을 추진한다.

또 ▲글로벌 MRO 분야 협업 추진 ▲Training Center 운영 노하우 교류 ▲신규 무기체계 개발·양산 기술협력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태식 LIG넥스원 PGM사업부문장은 “앞으로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은 지속가능한 MRO 역량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 협약이 해외 시장에서 LIG넥스원의 입지를 한층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메타 과징금 사건 후폭풍… 韓, IT기업 개인정보 보호 경각심

빅테크 ‘데이터 장사’ 논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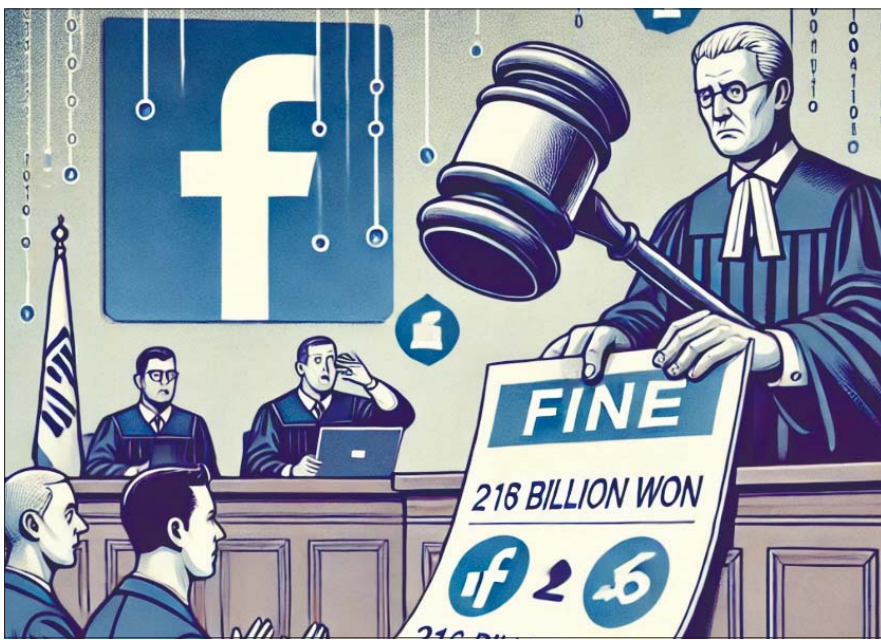
메타, 민감정보 수집에 216억 과징금
韓,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대두
내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강화
데이터 수집·활용 등 투명성 제고

글로벌 빅테크 ‘메타’가 한국 이용자의 민감 정보를 무단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수백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빅테크 기업들의 ‘은밀한 데이터 장사’가 도마에 오르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기업들의 자발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빅테크 개인정보 침해는 ‘빙산의 일각’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국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한 뒤 광고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메타는 페이스북을 통해 약 98만 명의 한국 이용자들의 종교관,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등 민감한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약 4000곳의 광고주에게 제공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일 메타에 216억1300만원의 과징금과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약 216억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모습’을 담은 AI 이미지.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메타는 이미 한국 내에서 4번이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와 그 직전 해에도 같은 혐의로 각각 74억300만원과 3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2020년, 2021에도 이와 유사한 제재를 받았다.

특히 메타는 이용자의 ‘좋아요’ 클릭, 광고 반응 등 행태 정보를 분석해 특정 종교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 각종 민감정보를 추출하고

관련 광고 주제를 만들어 운영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 및 활용하는 위법 행위다. 또한 메타는 사용자의 열람 요구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한 법률전문가는 “메타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시정명령 이

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차별 없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IT 기업들도 안전지대 아니다

메타 사건을 계기로 국내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과 SNS 플랫폼들 역시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유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내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마켓컬리는 구글을 통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구인 광고를 진행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AI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도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수집 및 활용해 큰 논란이 일었다.

◆세계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 추세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작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등이 시행되는 등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GDPR은 위반

시 최대 매출의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LG유플러스 등 일부 IT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최고개인정보책임자(CPO)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고위 경영진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네이버, 카카오, LG유플러스 등은 MS CI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리더’ 등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기업들은 이용자 동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수집한 정보의 범위와 활용 방식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결국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규제 준수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면서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규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소상공인과 함께 가는 경쟁 확대 필요”

유상임 장관, 플랫폼 기업 대표 회동
소상공인 선택권 강화위한 상생 제안
카카오 등 상생협력 적극 동참 응답

포스코그룹이 6일 포스텍에서 2024년 포스코그룹 테크포럼을 개최했다.

포스코그룹 테크포럼은 그룹 핵심사업의 주요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소통, 논의하는 행사이다. 1989년을 시작으로 올해 36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5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지주사 출범 이후 포스코그룹 기술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결속을 다지고, 철강과 이차전지소재를 비롯해 그룹 핵심 기술들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며 기술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회식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시우 포스코 사장, 김기수 포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6월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철강 콘퍼런스에서 ‘조격차 미래 경쟁력을 향한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스코홀딩스 기술총괄,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 유병욱 포스코퓨처엠 사장 등 주요 그룹사 대표와 기술 분야 임직원 1200여명이 참석했다.

장인화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항상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돌파구를 찾아왔

다. 현재 회사가 글로벌 불확실성과 캐즘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초일류를 향한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그룹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인 원료업체들과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호주 원료 리오 틴토의 사이먼 패리 탄소중립 담당 임원이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원료회사의 전략 및 철강사와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또 이날 초일류를 위한 미래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자 고객·엔지니어·연구원·중소기업 간 협업 등으로 기술개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포스코 기술대상’을 수여했다. 올해 기술대상은 혁신상(2), 창의상(4), 도약상(3), 도전상(3), 총 12건으로, 광양 제강부 김관형 대리가 ‘Digital Twin기반, 전로 One-Touch 조업 기술’로 1등상을 대표로 수상했다.

/양승운 기자 ysw@

“혁신기술로 글로벌 초일류 기업 도약”

포스코그룹, ‘테크포럼 개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만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6일 오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플랫폼사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대표와 인터넷기업협회장, 플랫폼법정책학회장 등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유 장관은 플랫폼 회사 대표들에게 “플랫폼의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거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

큼 소상공인 등과 상생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간 경쟁이 격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수수료 인하 등 경쟁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보다 유리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담회에서 서울대학교 이봉의 교수는 “플랫폼의 가치와 플랫폼 정책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은 금융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소상공인 상생방안을 보다 확대하겠다고면서 상생협력 활동 현황과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유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S전선, 부유식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LS전선이 고난도 기술력을 활용해 한국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LS전선은 노르웨이 종합에너지 기업 에퀴노르(Equinor)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인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에퀴노르가 올

산 연안에서 약 70km 떨어진 해상에 2030년까지 750MW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해저에 고정하지 않고 부유물 위에 터빈을 설치해 깊은 바다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안가 설치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부유식 해상풍력용 다이내믹 해저 케이블을 개발하

여 혹독한 해양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내구성을 확보하고, 국제 인증까지 취득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

다이내믹 케이블은 높은 파도와 강한 조류에 견디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전달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기업만이 개발에 성공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LS전선의 기술력은 한국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여 혹독한 해양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내구성을 확보하고, 국제 인증까지 취득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

다이나믹 케이블은 높은 파도와 강한 조류에 견디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전달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기업만이 개발에 성공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LS전선의 기술력은 한국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효성중공업 ‘BIXPO’

미래 전력망 시스템 선포

효성중공업이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전시회에서 K-전력 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다.

효성중공업은 오는 8월 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글로벌 전력·에너지 산업 엑스포인 ‘BIXPO(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4’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BIXPO 2024’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전시회 및 학술대회로 국내외 200개 기업에서 약 2만명 이상의 전력 산업 전문가가 참가한다.

/차현정 기자

KT ‘와이스팟’

“핫플레이스 여기 다 있네”

KT가 자사 혜택 플랫폼 ‘Y박스’에 핫플레이스를 추천해주는 ‘와이스팟(YSPOT)’ 기능을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Y박스는 데이터 선물 기능과 함께 다양한 혜택 정보를 안내하는 혜택 플랫폼이다. Y박스에 추가된 ‘와이스팟 코스 추천’ 기능은 MZ세대가 선호하는 식당·카페 등 ‘핫플레이스’를 추천해준다. KT의 대학생 마케터 ‘Y퓨처리스트’가 직접 기획·취재해 콘텐츠로 제작해 소개한다. KT는 사용자 참여형 커뮤니티 ‘와글와글’ 서비스도 함께 추가했다.

/이혜민 기자 hyem@

GREEN *Sweet* WINTER

강원 다래의 상큼 달콤함을 담은 겨울의 한 잔



다래 레드 스위트
5.9



다래 그린 스노우
ICE ONLY 6.9



강원특별자치도

우리나라 토종 과수 다래 농가와 함께합니다.

코스닥시장 중심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불성실공시 늘어

금감원·거래소, 판리 강화·제도 보완
중요내용 본문 필수기재 항목 구체화
협력 통해 허위·과장공시 신속 조치

최근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 국거래소는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공시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에 나선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 시장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는 10건으로 전체 불성실공시(54건)의 18.5%를 차지했다. 해당 비율은 2021년 21.2%, 2022년 16.1%에서 2023년 9.9%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상장사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유가증권 시장 5%, 코스닥시장 10%·3억원)이



금융감독원.

상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계약체결 공시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최초 계약 금액의 50% 미만을 이행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성실공시로 인

해 계약체결 및 진행 과정에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며 “대규모 수주계약이 테마주와 결합할 경우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A사는 코로나 백신 관련 공

급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공시 전후 10거래일 간 주가는 62.3% 상승했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 금액의 절반도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했고 결국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중 계약조건 관련 중요 내용을 본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관련 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중 계약조건 관련 중요내용은 본문에 필수로 기재하도록 항목을 구체화하고, 계약금 유무 등 계약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한다.

공시유보(비공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가능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전부 공시유보를 허용하되 그 적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시유보하는 경우에

는 기업이 해당 공시본문에 투자자의 사항 문구를 기재하도록 했다. 정기보고서(반기·사업보고서)에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진행현황, 미진행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반기 단위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최초 계약체결 공시와 진행상황 공시 내용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허위·과장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기관 내, 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개정된 정기보고서 서식,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수시공시 서식을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부양 도모 등 부정거래 행위 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트박스글로벌, ‘이커머스 1호 상장’ 코앞

IPO 간담회

흑자전환 성공 후 2년 연속 기조 유지
유통구조 혁신으로 경쟁력·신뢰성 ↑
오는 12일~13일 일반투자자 청약 진행

“상장 후에도 플랫폼 고도화와 신사업 확장 등을 추진해 기업을 성장시키겠습니다. 미트박스글로벌을 통해 축산물 유통시장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기봉 미트박스글로벌 대표이사(사진)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상장 전략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미트박스글로벌’은 이번 IPO를 통해 ▲플랫폼 고도화 ▲축산 유통 기업 인수 ▲인프라 확장 등을 도모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미트박스글로벌이 쉼터나 오아시스 보다 먼저 ‘이커머스 1호 상장사’로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김 대표는 “시장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트박스는 드물게 성장과 이익을 동시에 이루고 있고, 내년에는 팔목상대할만한 이익구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트박스글로벌은 지난 2022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후 2년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23년 매출액은 669억원, 영업이익은 2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만 524억원, 영업이익은 14억원을 달성했다.

김 대표는 “이용 고객의 재구매율은 평균 83%이며, 신규 고객은 매년 증가해 2023년 연간 구매자 수가 6만명을 넘어섰다”고 천명했다.

미트박스글로벌의 경쟁력은 유통구조 혁신에 있다. 김 대표는 “기존 축산물 유통 시장에서는 판매자(수입업체·1차도매상)에서부터 소비자(개인)까지 다 단계를 거치는 만큼 높은 유통비용(48%)과 정보비대칭성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당사는 중간 유통 단계를 축소

시켜 가격 경쟁력은 물론 신뢰성까지 높였다”고 설명했다.

미트박스글로벌은 기존 축산물 시장 침투를 확대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성장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B2B 시장의 특성 상 구매 단가와 규모가 큰 만큼 판매자와 판매자 간 대량 거래가 가능한 중개 시장 진출과 베트남 및 대만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시장 확장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김 대표는 “기존의 플랫폼 외에도 10여년간 쌓아온 축산물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미트매치’ 플랫폼 및 M.I.T(Meatbox Insight Tech-service) 데이터 서비스 런칭 등 신사업 확장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IPO를 통해 미트박스글로벌이 공모하는 총 주식수는 100만주이고, 1주당 공모 희망가격은 2만 3000원~2만 8500원, 총 공모금액은 230억원~285억원이다.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오는 12~13일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 행사를 진행한다. 코스닥 시장 상장일은 오는 22일이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증권, 인니에 ‘금융교육 우수사례’ 소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한·인니 금융소비자 보호 워크숍’(한국 금융감독원·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공동 주최)에 참가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행사에서 금융교육의 중요성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소개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특히, 금융취약계층(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군부대)에 대한 금융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방식에 대한 소개가 큰 호응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 적립금 40兆 달성

증권업계 최초… 8년 만에 5배 성장
이달 중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제공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연금자산 적립금 40조원을 달성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지난 4일 퇴직연금 부문에서는 27조7000억원을, 개인연금 부문에서는 12조3000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창업 당시 8조6000억원의 연금 자산이 8년만에 약 5배가 성장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업권 최초로 IRP(개인퇴직계좌)적립금 10조를 돌파하며 개인연금/DC적립금/IRP적립금까지 10조원이 넘는 ‘연금 트리플 크라운’ 달성의 쾌거를 이룬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적립금뿐만 아니라 수익률에 있어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2024년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및 수익률 공시에서 DC와 IRP 모두 상위권 성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장기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과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세무·노무·계리 등 영역별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연금 조직의 컨설팅 역량을 통

해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투자하는 연금’으로의 머니무브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하는 연금’의 필요성에 따라 개인형 연금자산의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으며,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서도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비스(MP구독, 로보어드바이저, 개인연금)를 통한 글로벌 자산배분과 안정적 수익률, 디지털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는 미래에셋증권만의 특화된 강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11월 중순부터 M-STOCK을 통해 퇴직연금(DC/IRP)과 동일한 개인 맞춤형 설계 경험을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며, 통합 연금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하나의 UI/UX(고객경험)으로 통합 제공하는 것은 미래에셋증권이 최초다.

최종진 미래에셋증권 연금본부장은 “고객의 성공적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신고서 정정 요구

“기재 미흡 부분 확인”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6일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이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금감원 측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고려아연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사전에 유상증자 계획을 세우고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31일 진행된 현안 브리핑 자리에서 “자사주 매각에 이어 유상증자를 할 것이란 계획을 세워놓고 순차적으로 진행한 한 것이라면 공개매수 신고서엔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정거래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신고 이후 금감원은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현장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유상증자 계획 등을 알고 도 방조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검사 결과가 즉각 나오기는 힘들다”며 “불공정거래 해당여부는 몇달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지엔티파마-화이자 손잡고 반려견 치매 ‘토종신약’ 세계화

세계최초 개발 ‘제다큐어’ 약효 입증
국내 동물병원 2000여곳서 처방

美 화이자와 제다큐어 생산 계약
태국 펫페어 SEA서 협업요청 쇄도

토종 기술로 만든 반려견 치매 치료
신약이 화이자 등 글로벌 빅파마와 협
의하며 해외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건다.

신약 개발 벤처기업 지엔티파마는 반
려견 인지기능장애 신약 ‘제다큐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화이자의 자회
사 등 다국적 동물약품 회사 등 7개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비밀 유지 계약으로 제약
사명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엔티파마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종표적 뇌세포 보호 신약 제다큐어는
사람의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하게 인지
기능장애를 앓고 있는 반려견에서 약효
와 안전성이 입증돼 2021년 2월 국내 최
초 합성신약 동물용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현재 국내 동물병원 2000여곳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펫페어 SEA(South East Asia) 2024’ 지엔티파마 홍보 부스.

에서 처방되고 있다.

반려견 인지기능장애는 8살이 지난
노령견의 14~35%에서 발생하고 있
으나 세계적으로 질환 치료제는 없는 실
정이다.

지엔티파마는 “인지기능 장애를 앓
고 있는 노령견이 제다큐어를 복용한

후 기억력을 회복하는 증상 개선과 질
환 치료 효과가 임상시험에서 확인됐
고, 지난 3년 동안 시판 후 조사 연구에
서 장기 복용 약효와 안전성이 확증되
에 따라 제다큐어의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진출에 맞춰 지엔티파마

는 제다큐어 제형 일부를 변경했으며
미국 화이자의 자회사인 화이자 센터원
에서 제다큐어를 생산하는 포괄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지엔티파마는 “화이자 센터원에서
제다큐어 완제의약품 생산이 완료되면
해외시장 진출이 개시된다”며 “이를 위
해 3개의 다국적 동물약품 회사를 포
함한 7개 제약회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북미, 유럽, 동남아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다큐어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펫페어
SEA(South East Asia) 2024’에서 세
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펫페어
SEA 2024’는 45개국 400개의 전시 업
체, 75개국 1만5000여명의 유통 대리상
이 참가한 동남아시아 최대의 반려동물
산업 전시회이다.

지엔티파마 애니멀 헬스 사업본부이
진한 본부장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해외 업체와 유통 대리상들의 제다큐

어 협업 요청이 쇄도했다”며 “특히 사
람의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하게 인지기
능장애를 앓는 반려견에서 기억 및 일
상생활 회복 약효가 입증된 신약까지
개발됐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2021년 5월 국내에서 출시된 제다큐
어의 매출은 매년 40%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연 매출 20억원을 상
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동물약품
품 시장 규모가 세계 의약품 시장의 1%
정도로 추정되고, 반려동물 의약품 시
장이 연간 4.42%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제다큐어의 글로벌 매출은
2029년에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엔티파마 광병주 대표이사는 “평
균수명의 증가로 인지기능장애를 앓는
반려견과 반려료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적응증이 계속 확장되고 있어 해외 진
출이 개시되면 제다큐어는 3~5년 이내
에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자리 잡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KT, 데이터브릭스와 데이터·AI 혁신 업무협약

한국형클라우드·AI모델 첫 협업
임직원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강화

KT가 AI 전환을 위해 글로벌 데이
터 전문 기업과 협력한다.

KT는 데이터브릭스와 데이터·AI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국내 AX(AI 전
환)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솔
루션과 MS 협력 기반으로 KT가 개발
하는 한국형 클라우드·AI 모델의 첫 번
째 협업 사례다.

데이터브릭스는 샌프란시스코 거점에
전 세계 7000여 명 조직으로 구성된 글로
벌 데이터·AI 전문 기업이다. 데이터브릭
스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은 개방
형 통합 데이터 플랫폼인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에 생성형 AI를 접목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KT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Secure Public Clou
d) 기반 데이터·AI 플랫폼 개발, 산업
별 데이터 PaaS 기반 AI서비스 확대,
데이터·AI 전문 기술 역량 강화 분야에



KT 오승필 기술혁신부문장(CTO·오른쪽)과 데이터브릭스 아르살란 타바콜리(Arsalan Tava Koli) 공동창립자 겸 필드 엔지니어링 총괄 수석 부사장이 데이터·AI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국
내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

협력한다.

데이터·AI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교류와 협업도 추진한다. 데이터
현대화 및 교육을 추진해 KT 임직원들
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
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CoE)을
구성해 양 사 기술 교류와 역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 실전 프로젝트, 기술 컨
설팅을 수행한다.

KT에 따르면 KT 시큐어 퍼블릭 클
라우드에는 보안성·규제 요건을 만족하
면서 최신 AI·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다. KT는 이를 기반
으로 한국형 AI 서비스와 다양한 Saa
S·PaaS를 확대해 고객들에게 IaaS부

터 SaaS까지 한 번에 제공할 계획이
다. 목표를 위해 향후 국내외 전문 기업
과 파트너십을 지속 체결하고 AX 생
태계 확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은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고객들도
보안이 강화된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
에서 최신의 데이터, AI 플랫폼을 자
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KT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전문 솔루션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고 했다.

데이터브릭스 아르살란 타바콜리
공동창립자 겸 필드 엔지니어링 총괄
수석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으로 조
직의 데이터에 최적화된 AI, 즉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민간 및 공공 부문에 걸
쳐 한국의 다양한 고객들이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KT 임직원
들이 고도화된 데이터 및 AI 기술을 습
득하고, 데이터 및 AI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제주항공 환승여객 수요 집중 수익모델 확보 나서

제주항공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환승여객 수요 창출에 집
중한다.

제주항공은 현재 취항하고 있는 일
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50개 도
시, 73개 노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선
조합을 통해 여행객들의 이동 편의 증
대, 고객 선택권 확대 등은 물론 신규
수요를 발굴해 수익 모델을 다각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미 제주항공은 엔데믹 이후 일본
소도시 신규 취항과 동남아 신규 노선
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인천
공항과 히로시마공항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히로시마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
쳐 태국, 베트남, 필리핀, 홍콩 등으로
이어지는 환승 상품을 개발했다. 이 외
에도 마쓰야마, 태국, 베트남 등을 경
유하는 다양한 환승 옵션을 제공해 고
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환승여객 수요 증가로
나타났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제주
항공을 이용해 한국을 경유한 환승객 수
는 9만9570명으로 지난해 대비 35% 증
가했다. 다만 전체 국제선 수송객 대비
환승객 비중은 1.5%에 그치고 있다.

제주항공은 환승여객 성장성에 주목
하고 있다. 2014년 제주항공을 이용한
환승객은 1000여명에 불과했지만 약 5
년 만에 150배 넘게 성장했다. 비록 코
로나19로 인해 성장세가 주춤했으나
2021년 1856명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9만7092명을 돌파하며 빠른 속도로 증
가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환승객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신규 취항, 해외 네
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노선 조합을 통
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양성운 기자 ysw@

‘그냥 쉬었음’ 인구 24.5만명 ↑… 20대 5.4만명, 14.1% 급증

통계청, 8월 비임금근로 등 조사
비경제활동인구 1621.1만명 달해

일할 능력은 있으나 구직활동 없이
쉬는 인구가 1년 전에 비해 24만여 명 늘
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20대에서만 5
만 명 넘게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저조
한 노동시장 참가율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8월 비임금근
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8000명 증가했다. 비경인구의 비중은
35.6%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비경인구 중 ‘그냥 쉬었음’ 인
구가 24만5000명 늘었다. 특히 20대
에서 5만4000명(14.1%)이나 증가했다.
30대도 1만7000명(5.8%) 늘었다.

쉬었음의 이유로는 몸이 좋지 않아
서(35.3%),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
고 있음(18.4%),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17.9%) 순으로 높았다. 일자리
(일거리)가 없어서(9.2%)는 1년 전보다
1.3%포인트(p) 상승, 몸이 좋지 않아

서(35.3%)는 2.0%p 하락했다. 쉬 이유
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15~29세에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30.8%)이 가장 높았다. 그 외 연령대
는 ‘몸이 좋지 않아서’의 비중이 가장
컸다.

앞으로 1년 내에 취업이나 창업할 의
사가 있는 비경인구는 336만1000명으
로 전체 비경인구의 20.7%를 차지했
다. 1년 전에 비해서는 0.4%p 감소했
다. 연령대별 의사를 살펴보면 30대
(45.2%), 20대(44.6%), 40대
(33.2%), 50대(28.3%), 60대

(19.9%) 순이었다.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를 희망
하는 구성비는 여자(36.4%)가 남자
(14.9%)보다 높았다. 시간제 근로를 희
망하는 사유는 ‘본인의 건강 때문에’
(37.2%), ‘다른 일 또는 활동과 병행’
(23.8%), ‘육아·자녀교육’ (17.5%)순으
로 높았다.

취업 시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은
200만 원~300만 원이 43.9%로 가장 높
았다. 이어 300만 원 이상
(27.3%), 100만 원~200만 원
(20.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65
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7000명
줄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실질적 약가 정책’이 산업에 도움 신약개발, 밸류업·투자전략도 필요

K-바이오, 장기적 성장 로드맵

약가 정책 개선으로 신약 상업화 박차
신약개발 리스크 관리·자금조달 중요
투자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 필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을 근거로 한 약가 정책,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6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본부에서 열린 ‘2024 프레스 세미나’에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비용과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의 미흡한 실정을 알렸다.

노연홍 회장은 “다국적 제약사나 선진국에 비하면 국내 현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보험 약가 정책이 산업의 투명성과 미래 예측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가 국가 핵심 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단순 약가 인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날 동덕여자대학교 유승래 교수는 ‘약가정책과 산업육성 로드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약가 제도는 약물의 다양한 가치를 세분화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우선 기존 약물 대체에 따른 임상적·사회적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 대체 의약품이나 제네릭의 약품이 있는 경우, 신약에 낮은 약가가 책정되는 경직된 약가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국산 신약 개발은 단기간에 쉽게 달성하기 힘들고, 현실적으로 글로벌 회사의 제품을 상업화하고 있다”며 “특히 같은 기전의 기존 치료제 대비 개선된, 우수한 효과를 자랑하는 ‘베스트인 클래스’ 개발에 중점을 두는데 이 때 후속 약물에 대한 기대치와 약가의 편차



6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본부에서 열린 ‘2024 프레스 세미나’에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가 커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 결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세계적 수준의 규제 기관에서 품목허가를 받고 해외 발매된 국내 제품이 정작 국내에서는 등재에만 그치기도 한다.

유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약가 정책을 개선하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약가 규제가 연구개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가져와 업계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이 감소하고 동시에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증명됐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업화와 R&D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정규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이사의 ‘신약 개발, 죽음의 계곡 어떻게 건널까’라는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 발표에서 우정규 이사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생존법으로 벤처캐피탈(VC)과 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 유치, 전략적 투자자(SI)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강조했다.

우정규 이사는 “제약·바이오기업의 밸류업이 길어지는 이유는 단계마다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연구, 임상 진입, 마케팅 등 각 단계에서 기회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미래의 가치와 현재의 평가를 입증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모든 단계 가운데

신약의 운명은 초기에 정해진다”며 “초기 단계에서 성공 가능성이 드러나지 못하면 투자가 지속되지 않고, 연구개발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면 신약 개발은 실현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함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자금 조달 역량은 기업 수명과도 연관되므로 ‘마일스톤 기반의 기업 성장 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울 것을 강조했다. 또 자금조달 이후에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밸류업 논의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 해 동안 투자되는 제약바이오기업 연구개발비는 국내 상위 제약사 10개 수준을 합산해도 글로벌 제약사 1개 수준에 못 미친다”며 “협력했을 때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나와야 K제약·바이오가 발전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고금리·고환율로 시작된 바이오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우 이사는 “바이오 분야 글로벌 벤처투자의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해 회복 추세에 있으나, 국내까지 추세가 이어지려면 내년까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벤처캐피탈(VC)의 바이오 분야 신규 투자금액은 42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VC 투자 보릿고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오영주 “중동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우디 투자부·상무부 장관 회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국 중소·벤처·창업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상무부 장관과 잇단 회담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인 ‘BIBAN 2024’ 참가와 ‘K-스타트업 통합관’ 운영, ‘K-뷰티 혁신사절단’ 파견 등을 진두지휘하면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 장관은 사우디 핵심 부처와의 소통을 위한 첫 일정으로 지난 4일 알 팔레 투자부 장관을 만나 양국 중소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간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투자부는 지난해 우리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사우디 진출 거점인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한국 기업의 중동지역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양 장관의 만남을 통해 지난해 중기부와 투자부가 체결한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FCP)의 협약기간이 연장됐다.

지난 5일에는 오 장관과 비반(BIBAN) 주관 기관인 상무부 알 까사비 장관과의 회담도 성사됐다.

지난 7월 방한 때 오 장관에게 비반 초청 의사를 건넬던 알 까사비 장관은 중기부의 이번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 부처간 협력이 더욱 공고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추가로 예정됐던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은 사우디측의 불가피한 일정으로 취소됐다.

오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비반 2024’ 개막식에도 참석했다.

‘비반(BIBAN)’은 사우디 중소기업청(Monsha’at)이 주관하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로, 2017년부터 시작해 작년부터 국제 행사로 확대됐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혁신적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고, 한국과 사우디 중소벤처·스타트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개막식 직후에는 무대에 올라 ‘국경을 초월한 혁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주제로 기조연설도 했다.

연설 후에는 중기부와 사우디 중기청간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해외 스타트업 한국 진출 쉬워진다

중기부·법무부, ‘특별비자’ 도입

정부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본격 도입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는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D-8-4)와 달리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와 법무부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기술창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

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서울 역삼동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의 문을 연데 이어 이번에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특별비자 제도까지 도입한 것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추천 역할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230억 투자로 행성 로버 부품 국산화 추진

산업부,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협약
민관 협력 강화... 13개 기업 참여
자동차·로봇·우주 성장 동력 창출

민관이 230억원을 투자해 행성 탐사용 로버(Rover) 핵심 부품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천안 소재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행성탐사용로버 구동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 착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버는 유·무인으로 운용되는 우주 탐사 차량으로 행성 탐사의 핵심 수단이자 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100여개 이상의 달 탐사 프로젝트가 추진될 전망이며, GM, 록히드마틴, 토요타, 혼다 등 글로벌



달 탐사 로버 활동 예상도. /현대자동차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로버 개발을 진행 중이다.

국내 기업들도 우주 신산업 개척을 위해 선제적으로 로버 기술 개발 투자에 나서고 있고, 산업부는 우주에서도 작동 가능하도록 이번 사업을 최초로

기획해 민간 주도의 첨단 우주 부품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사업에는 산업 기술의 확장성이 높은 모빌리티(한자연, 현대자동차), 로봇(로보트로), 원전(한국원자력연구원), 우주(저스텍), 첨단 부품(한일하이테크) 등 다양한 분야 13개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한다.

국비 181억원을 포함해 총 230억원을 투자해 극한환경(극저온, 고진공, 고방사선 등)에서도 작동 가능한 로버용 모터·드라이버·감속기, 현가장치, 로봇팔, 에어리스 휠 및 통합모듈, 우주 극한 환경용 특수 윤활 기술, 회전체 부품 개발 등 10여 종의 핵심 부품 개발에 도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세제혜택 확대

소득공제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당 간사가 입법에 나서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청신호가 쏠렸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

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상향하고 사업소득 기준을 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전체 가입자의 약82%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공제 세액도 두 배로 늘어나 연 평균 76만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주제 : 초현실사회로 :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4:00~17:10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문의 :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18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초현실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전체 수산물’ 단순 물세척 허용 환경부 “폐수처리 어려움 해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해조류·갑각류·조개류서 확대
수질오염총량제도는 내년부터 시행
위·수탁 폐수 실적 보고 면제 개선

정부는 단순 물세척만 진행하는 시설의 적용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하고, 폐수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폐수 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수질오염총량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한다.

이는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을 폐수 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어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나 지정폐기물 업체에 모두 위탁 처리할 경우, 위탁한 폐수의 실적을 매년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폐수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해당 사업장’의 폐수를 모두 공공하수·폐수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 배출시설’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수의 폐수 배출시설을 보유한 단일 사업장

의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방류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사업장이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개선명령으로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조사·연구반에 국립환경과학원 외에도 수질자동측정장 등 실측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을 추가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폐수 처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농작업 기계화 모습.

/뉴시스

양파·마늘 재배 전 과정 기계화 모형 공개

농진청 ‘현장 전시회’서 기술 소개
노동력, 생산비용 절감 효과 기대

양파 및 마늘의 재배 전 과정 기계화 모형이 공개됨에 따라, 농가 일손 부족의 해소뿐만 아니라 경영비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진청은 6일 경남 합천에서 ‘양파·마늘 스마트 기계화 재배모형 현장 전시회’를 열고, 양파와 마늘 재배 전 과정 기계화 기술을 소개했다.

최근 국내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올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논벼 기계화율은 99.3%로 거의 완성됐으나, 밭작물 기계화율은 2022년 기준 66.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양파 정식과 수확 작업 기계화율은 각각 16.1%, 25.8%, 마늘 파종과 수확 작업 기계화율은 각각 14.8%, 43.8%로 다른 작업보다 낮다.

농진청은 지난해부터 주요 밭작물 중 재배 면적이 넓고 노동강도가 높은 양파·마늘 재배 기계화를 우선 추진해 ‘재배기술-농기계-저장’까지 연계한 스마트 기계화 재배 모형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를 양파에 적용한 결과, 10아르(300평)당 노동력은 기존 38.2시간에서

5.1시간으로 87%, 생산비용은 기존 7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82% 절감할 수 있었다.

마늘에 적용했을 때 노동력은 45.7시간에서 9.4시간으로 79%, 생산비용은 122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74%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현장 전시회에서는 각각의 기계화 재배양식과 비닐피복, 파종(마늘), 정식(양파, 본밭 아주심기), 재배관리용 작업기 등 총 13개 기종을 소개하고, 양파 플러그 생산 기술을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 시연한 승용형 자동 양파 정식기는 자동으로 모종 상자에서 모종을 뽑고 이송해서 정식하는 작업기다. 한 명의 작업자가 타고 작업하며 4조식으로 두둑을 왕복하면 한 두둑에 8줄의 양파를 정식할 수 있다.

조파식 마늘 파종기는 한번에 8줄씩 마늘 종자를 누어서 줄뿌림하는 작업기다. 파종과 제초제 살포, 비닐 피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트랙터 부착형과 자가 동력으로 파종하는 보행형이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양파·마늘 주산지에서 농업인에게 기계화 기술을 직접 소개하는 현장 연·전시회를 열어 양파·마늘 스마트 기계화 재배 모형을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부, 베트남 반덤핑조사 ‘최소규제’ 요청

무역구제협력회의·FTA 무역구제
컬러도금강판, 철강와이어 등 조사

정부가 베트남 정부의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와 관련, 최소 규제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서울에서 ‘제8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9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구제(Trade Remedy)란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 또는 공정무역이라든가 국내 산업에 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 보호와 불공정 교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를 말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양국 무역구제기관은 지난 2015년 12월 ‘한·베 FTA’ 발효, 2018년 3월 ‘한·베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확대 MOU’를 체결,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신속 협의하고,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 등을 논의하는 협력 채널을 구성해 매

년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상호 규제 중이거나 조사 중인 건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등 무역구제 등 조사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10월말 기준 양측은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 각 3건 조치 중, 1건을 조사 중으로 베트남은 한국산 컬러도금강판, 철강와이어, 아연도금강판 등 철강제품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이 지난 6월 조사 개시한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 관련 “동 제품의 베트남 철강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베트남측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조사 진행과 최소 규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노사발전재단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

노사발전재단이 오는 8일까지 라오스 현지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정책 자문 활동을 수행한다고 6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2022년부터 무상원조(ODA) 시행계획에 따라 라오스 노동법 개정을 지원해 왔다. 이번 일정은 지난 6월 진행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의 한국 초청 프로그램에 이어 진행되며, 라오스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법 개정에 발맞춰 라오스 근로감독체계 개선 및 근로감독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라오스 노사정의 역할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폴리텍,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열어

사회문제·신기술 결합 아이템 선별

한국폴리텍대학은 6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반도체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제8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폴리텍대학의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을 키우고, 예비 창업가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된 행사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이 대회에는 지금까지 801개 팀, 3865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팀들은 페달 오인 조작, 전기차 화재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시의성 있는 주제와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 아이템을 선보였다.

대상을 수상할 3개 팀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함께 각 1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금상 4개 팀에는 폴리텍대학 이사장상과 각 100만원의 상금이 시상된다. 총상금은 약 1760만원이다.

아울러 대회에서는 벤처 창업 분야 전문가 염지홍 대표가 ‘문제 발견 능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그는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 관찰 태도’의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경험을 참가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가 혁신적인 창업가로 계속 도전해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고용부, 대·중소기업 안전관리 협력 고도화

화학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LG화학 등 기업, 종사자 약 180명 참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일 충청남도 서산 LG화학 대산공장 대강당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2024 화학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포럼은 지난 6월 반도체 업종을 시작으로 자동차, 통신, 철강, 화학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하며 개최됐다. 대기업과 협력사 760여개사, 자치단체, 학계, 관련 협회 종사자 등 약 1600명이 참여했다. 여덟 차례의 포럼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이 중소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대기업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라는 윈-윈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마지막 포럼인 이번 화학포럼에는 LG화학, HD현대오일뱅크 등 화학 관련 대기업과 협력사 종사자, 학계 및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약 180명이 참여했다. 화학업종은 대규모 설비와 다양한 공정으로 인해 설계, 운전, 보수 및 유지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어 한번의 화재, 폭발, 누출로도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협력사에 위험성평가와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안전관리를 표준화한 미국의 다우케미칼사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모든 작업과정에 대해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상생협력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업종별 협단체가 각 업종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장에서 경험적으로 쌓인 안전관리 지식과 정보를 문서화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업종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 내의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동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상생협력 모델이 화학업계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쿠팡, 3분기 매출 10.7조 ‘분기 최대실적’… “아직 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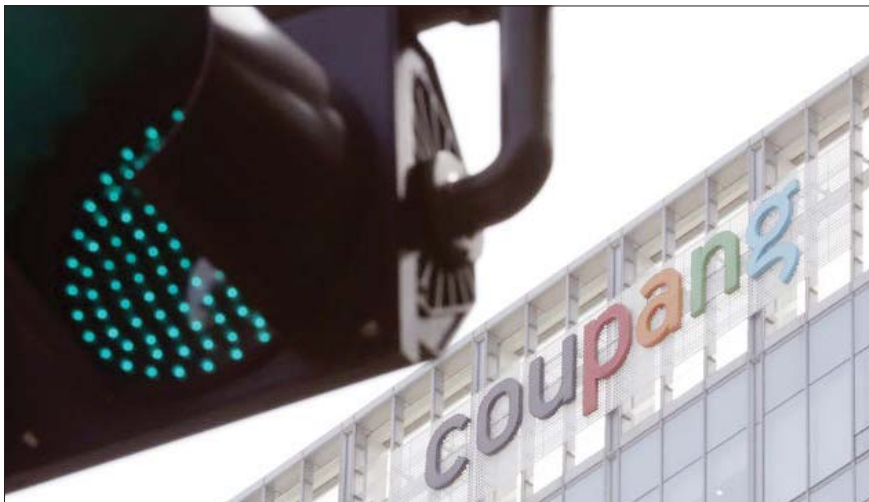
영업익 전년비 29% 증가 1481억
성장 핵심으로 ‘와우 멤버십’ 꼽아
회원의 주문빈도 비회원의 9배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고객 11% ↑

쿠팡이 2024년 3분기에 약 10조6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Inc가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0조6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명품 플랫폼 ‘파페치’의 매출(5966억원)을 제외한 매출은 10조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성장했다.

특히 쿠팡은 지난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올 3분기까지 공시한 15번의 분기 실적 중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한 모든 분기에서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48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당기순이익은 869억



쿠팡 건물 외경.

/뉴시스

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이뤘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겸 창업자는 이날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을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김 의장은 “기존 충성고객의 지출 확대와 무료 로켓배송, 새벽·당일 배송, 무료반품, 쿠팡이츠 무료배달, 쿠팡플레이 무료시청 등 와우 멤버십 혜택과 가치를 누리는 회원이 늘고 있다”며

“와우 회원의 주문 빈도가 비회원 고객의 9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오래된 와우 회원은 신규 와우 회원보다 평균 2.5배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출시한 럭셔리 뷰티 버티컬 서비스 ‘R.LUX(알렉스)’를 언급하며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로켓배송·로켓프레시·로켓그로스·마켓플레이스 등 쿠팡의 주력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의 활성고객(쿠팡에서 한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수)은 2250만명으로 전년 동기(2020만명)보다 11%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프로덕트 커머스 고객의 1인당 매출은 43만2160원으로 전년 대비 8%, 프로덕트 커머스 분야의 3분기 매출은 9조36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김 의장은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고객은 기존 고객의 지출 확대에 힘입어 11% 성장했다”면서 “거대한 커머스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한 부분은 여전히 일부에 불과하며, 더 많은 성장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만·쿠팡이츠·파페치·쿠팡플레이 등 ‘성장사업’ 부문의 3분기 매출은 1조3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성장했다. 특히 쿠팡이츠와 대만 사업에 대해서 탁월한 서비스와 가치를 경험한 이츠 고객의 열렬한 반응에 고무적이며, 대만에서는 더 많은 브랜드와 직접 파트너십을 맺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비비고 닭갈비·간장찜닭 출시

CJ제일제당은 별도의 재료 준비 없이 하나의 제품만으로 일품요리를 즐길 수 있는 ‘비비고 메인요리’ 2종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물요리와 전골에 이어 볶음, 찜을 포함한 일품요리까지 선보이면서 냉동 간편식(HMR) 카테고리 성장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에 출시한 ‘비비고 춘천식 철판닭갈비’와 ‘비비고안동식간장찜닭(사진)’은 비비고만의 노하우와 기술로 전문점 수준의 차별화된 맛 품질을 구현해냈다. 엄선한 닭다리살을 특허 받은 마리네이드(고기나 생선을 조리하기 전에 맛을 들어가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재워두는 액체)로 저온숙성해 닭고기 특유의 잡내는 없애고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은 그대로 살렸다.

여기에 양배추, 양파, 대파 등 다양한 야채와 필수 토핑 재료인 떡사리, 당면사리 등을 한 팩에 담아내 재료 준비와 조리의 번거로움을 덜어냈다. 해동한 제품을 팬에 7분만 조리하면 집에서든 즐길 수 있는 완벽한 메인 요리가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마트·슈퍼, 온·오프라인 통합 리테일 청사진 소개

‘2025 파트너스데이’ 개최

파트너사 70여곳 CEO·임원 참여
부산 CFC 2026년 1분기 완공·가동

롯데마트와 슈퍼가 파트너사 초청 간담회 ‘2025 롯데마트&롯데슈퍼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하고 향후 온·오프라인 통합 리테일 기업으로서의 청사진을 소개했다고 6일 밝혔다. 행사에는 총 70여 파트너사 최고경영자(CEO)와 담당 임원 등이 자리했다.

롯데마트·슈퍼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파트너스데이’는 상호 간 굳건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체계를 확립하고자 마련한 파트너사 초청 행사다.

올해는 ▲신선·델리 ▲가공·일상 ▲주류 ▲PB ▲생활잡화 5개 부문으로 파트너사를 구분해 5회차에 걸쳐 진행됐다.



강성현 롯데마트·슈퍼 대표(왼쪽 세 번째)와 파트너사 대표 및 임원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서울 롯데월드 타워에서 진행된 ‘2025 롯데마트&롯데슈퍼 파트너스 데이’에 참여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마트·슈퍼

행사를 주관한 강성현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는 파트너스 데이를 통해 롯데마트와 슈퍼의 내년도 새로운 성장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롯데마트·슈퍼는 온라인 사업에 집중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는 2025년부터 ▲온라인 식품점 신사업과 ▲전문 데이터 제공을 통한 파트너사

협업 강화를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 리테일 기업으로서 식품포 시장 선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온라인 식품포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차세대 e그로서리 앱 ‘롯데마트 제타’를 내년 상반기 선보인다.

또한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인 ‘부산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오는

2026년 1분기에 완공하고 온라인 식품점 신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이후 2032년까지 이 같은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를 전국에 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게 롯데마트 슈퍼 측 설명이다.

롯데마트·슈퍼는 파트너사에 고객 및 판매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닐슨 액티베이트’ 경영 분석 도구도 제공한다. ‘닐슨 액티베이트’는 소비자 인사이트 데이터 분석 기업 닐슨아이큐(NIQ)가 운영하는 데이터 경영 분석 도구로, 다양한 성과 지표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한다.

기존 오프라인 사업도 대폭 강화한다. 롯데마트·슈퍼는 롯데마트 구리점, 천호점을 포함, 오프라인 매장을 신규 출점한다. 이 외에도 식품포 전문매장과 소규모 편의점 등 여가와 오락,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몰링형 매장 점포도 확대한다는 게 롯데마트 슈퍼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신세계, G마켓·옥션과 ‘상생페스티벌’

중소기업·마을기업 판매자 지원

신세계그룹의 e커머스 플랫폼 G마켓이 옥션과 함께 ‘상생페스티벌 베스트상품전’을 통해 G마켓과 국가기관이 인증한 인기 상품을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는 이달 10일까지 열린다.

G마켓에 따르면 ‘상생페스티벌’은 전국 생산자, 중소기업, 마을기업 판매자의 판로 확대와 신성장 동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G마켓이 2009년부터 주최해 온 국내 대표 온라인 박람회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후원한다.

‘상생페스티벌 베스트상품전’에서는 지난 9월 제18회 상생페스티벌에서 우수한 판매 실적과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을 보인 기업들의 상품을 엄선해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유기농 레몬즙, 멀티비타민 등의 건강식품과 합리적인 가격대의 쌀, 감귤 등 산지 농산물도 포함됐다.

/안재선 기자

‘홈플러스메가푸드위크’ 삼겹살 등 할인판매

오는 13일까지 2주 차 행사

홈플러스가 ‘홈플러스메가푸드위크’ 2주 차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는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홈플러스메가푸드위크’는 홈플러스가 매년 11월에 진행하는 대규모 식품 할인 행사다. 홈플러스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주 차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2주 차 행사에서는 ‘4일 특가’를 비롯해 큰 사이즈·대용량 먹거리 상품을 최대 반값에 제공하는 ‘메가 사이즈

페스타’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홈플러스는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주말 고객을 위한 ‘4일 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한돈 포먹돼 삼겹살·목심, 호주청정우 전 품목, 큰 단감, 바나나 등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위한 특별 할인도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남해안 생굴을 40% 할인된 4980원에 판매하는 것을 비롯해 단단 파프리카, 생생 춘천식 닭갈비·안동식 순살찜닭을 파격 할인한다.

/안재선 기자

/신원선 기자

치킨업계, ‘스타 마케팅’ 치열… 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도

업계, 1~3위 순위경쟁 치열
유명인 통해 소비자층 확장
“광고비, 결국 제품가격 영향”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스타 마케팅’이 치열하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 배우와 스포츠 스타를 앞세워 침체된 소비 심리를 부추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치킨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2015년부터 9년간 브랜드 모델을 쓰지 않았지만, 최근 배우변우석을 광고 모델로 전격 발탁했다. 교촌은 그동안 광고 모델 없이 제품 위주로 홍보해왔지만, 업계 순위가 1위에서 3위까지 하락하자 광고 모델 기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인기 스타의 경우 팬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로 연결 가능성이 크다.

교촌치킨은 변우석의 반듯하고 성실한 이미지와 교촌의 브랜드 가치와 ‘진심경영’ 철학이 일맥상통해 모델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교촌은 모델 선정과 광고 기획에 역량을 쏟은 만큼, 배우 변



교촌치킨이 배우 변우석을 모델로 발탁했다.

/교촌에프앤비



bhc치킨이 ‘뿌링클’ 출시 10주년 모델로 탁구선수 신유빈을 발탁했다.

우석과 함께 신메뉴 ‘교촌옥수수’와 교촌의 시그니처 메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유도하고 시장 입지를 다진다는 입장이다.

BBQ는 드라마 ‘미생’, ‘육룡이 나르샤’, ‘미스터 션사인’ 등 다양한 작품에서 연기력을 증명해 온 배우 변요환을 모델로 기용했다. 코미디부터 스릴러까지 자유롭게 넘나드는 변요환의 연기력과 친근하고 솔직한 매력이 BBQ의 슬로건인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건강한

치킨’과 잘 어울린다고 판단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bhc치킨은 올해 5월 새 모델로 배우 황정민을 발탁했다. 연령대·성별 등에 관계없이 선호도가 높은 국민 배우 황정민을 신규 모델로 발탁해 ‘모든 세대에 사랑받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함이다.

최근에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활약한 탁구선수 신유빈을 ‘뿌링클’ 출시 10주년 기념 모델로 기용했다. bhc에

따르면 신유빈 선수 기용 이후 10월 한달간 뿌링클 치킨 주문 건수가 자사 앱 기준으로 전월 대비 34배 증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치킨업계의 순위 싸움이 매년 요동칠만큼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시각적 효과가 큰 스타 마케팅에 힘 쏟는 분위기”라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호감인 유명인을 앞세우면 덩달아 브랜드 이미지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치킨 3사는 매년 치열한 순

위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bhc 치킨 매출이 5356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BBQ는 4731억원, 교촌치킨은 4259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bhc, 교촌치킨, BBQ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유명 모델 기용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프랜차이즈는 광고 모델 비용을 가맹점과 분담하고는 하는데, 유명 모델일수록 광고비가 오르기 때문이다. 가맹점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소비자가 감내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스타 마케팅에 적극 나서는 것은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해 제품 판매 촉진 및 실적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라며 “모델의 이미지가 결국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역기능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개인 사생활로 구설수에 오르면 기업 이미지까지 동반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한미약품, ‘HM17321’ 근손실 부작용 극복 가능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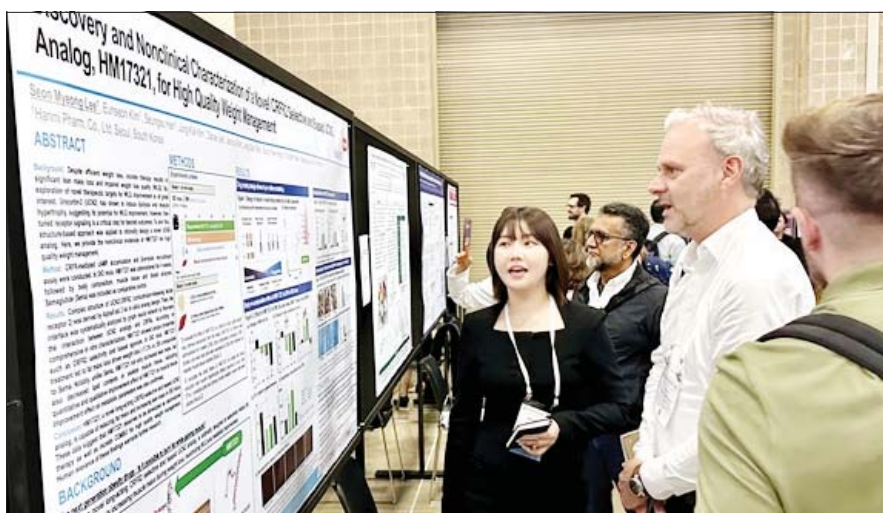
(비만치료제)

지방만 선택적으로 감량
‘게임 체인저’ 잠재력 입증

한미약품이 개발한 신개념 비만치료제가 기존 GLP-1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3~6일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미국비만학회에서 미국 비만학회에서 체중 감량과 근육 증가를 동시에 실현하는 ‘신개념 비만치료제(HM17321)’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기존 GLP-1 기반 약물이 가지는 근손실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미약품 최인영 연구개발(R&D)센터장은 이 학회에서 “HM17321은 R&D센터에 내재화된 최첨단 인공지능(AI) 및 구조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 근육은 증가시키면서, 지방만 선택적으로



한미약품 R&D센터 연구원이 미국비만학회(Obesity Week)에서 H.O.P 프로젝트 내 비만 신약 과제들의 연구 결과 3건이 담긴 포스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미약품

감량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비만 신약”이라며 “단독요법으로도 비만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기존 치료제와의 병용요법에서도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체중감량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HM17321은 지방만 선택적으로 감량하면서 동시에 근육은 증가시키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 GLP-1 기

반 비만치료제는 15~20% 수준의 효과적인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지만, 감량 체중의 최대 40% 수준이 근육 손실에 기인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 기전으로 약물 중단 시 기초 대사량 감소, 지방 재축적(요요 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6월 미국당뇨학회(ADA)에서 처음 공개해 큰 주목을 받은 HM15275의 후속 비임상 연구 결과 1건도 이번 학회에서 포스터로 발표했다. HM15275는 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25% 이상 체중 감량 효과가 기대되는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로, 부수적으로 다양한 대사성 질환에 효력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 HM15275는 미국에서 임상 1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5년 2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정관장 ‘화애락 콜라겐V7’ 출시

정관장이 피부 보습과 자외선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너뷰티 신제품 ‘화애락 이너제틱콜라겐V7(사진)’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화애락 이너제틱 콜라겐V7’은 피부 바이탈 핵심성분인 7가지 원료를 꼼꼼하게 담아 설계된 제품으로 피부 세포와 동일한 분자구조를 가진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와 자기 무게 1000배의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수분 장벽을 세워준다고 알려진 히알루론산을 주원료로 함유하고 있다.

‘화애락 이너제틱 콜라겐V7’은 카카오, 네이버, 쿠팡, 올리브영 등 온라인 채널과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국콜마 “화장품 신제품 출시 기간 단축”

맞춤형 생산 서비스 ‘PPS’ 본격 가동

한국콜마가 화장품 신제품 출시 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단축하는 ‘PPS(Packaged Product Service)’를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PPS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형과 용기를 다양하게 구축해 고객들이 원하는 선택지에 따라 바로 생산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특히 한국콜마는 제형 샘플 제조 및 협의 과정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은 화장품 개발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시간 소요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PPS를 이용하면 화장

품 제형이 용기와 반응하는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 절차를 미리 완료해 전체 과정에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한국콜마 측의 설명이다.

현재 한국콜마는 PPS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PPS 이용 고객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토퍼 기술이 적용된 9개 카테고리 및 140개 이상의 제형을 구축했다. 향후에는 메이크업 제품군을 포함한 모든 제형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ACD 신약 2종 연구성과 공개

(CT-P70·CT-P71)

종양 억제 효능·안전성 확인

셀트리온은 지난 5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 ADC 2024’에서 2개의 항체약물 접합체(ADC) 신약 파이프라인 ‘CT-P70’과 ‘CT-P71’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CT-P70은 비소세포폐암 등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ADC 치료제로, 암세포에서 활성화되면 종양의 성장을 유발하는 세포성장인자 수용체(cMET)를 표적한다.

연구 결과, CT-P70은 시험관 및 생체 내 cMET 발현 폐암·위암에서 종양

억제에 효과를 보였고 독성 시험에서도 충분한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것이 셀트리온 측의 설명이다.

CT-P71은 방광암을 비롯한 고형암 치료를 적응증으로 개발되고 있는 ADC 치료제다. CT-P71은 종양에서 관찰되는 핵틴-4 단백질을 표적하는데 비임상 연구에서 방광암·유방암·폐암의 종양 억제 효능과 안전성을 나타냈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ADC 파이프라인에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발굴한 ADC 전문기업 피노바이오의 ADC 플랫폼인 ‘PBX-7016’이 활용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국제약 ‘테카 토닝’ 다이소 유통

동국제약은 저자극 스킨케어 브랜드 마데카21의 ‘테카 토닝’ 제품군을 다이소에서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동국제약은 피부 잡티와 피부 톤에 대한 1020세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제품군을 확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데카21 ‘테카 토닝’은 피부 잡티부터 피부 톤까지 관리하는 제품군이다. 테카 토닝 토너, 테카 토닝 캡슐 세럼, 테카 토닝 크림, 테카 토닝 스팟 에센스, 테카 토닝 핑크 패드 등 5종으로 구성돼 스킨케어 단계별로 피부 고민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마데카21 테카 토닝 라인은 다이소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나무가든

프리미엄 숙성한우, 숙성한돈 전문점

나무가든 동여의도점 오픈기념 '화요' 이벤트

프리미엄 숙성한우·숙성한돈 전문점 나무가든은
이자카야나무의 패밀리브랜드입니다.

지금, 아래 QR코드를 찍고 나무가든 **회원가입** 하시면
'화요25' 1병을 드립니다.



📅 2024년 11월 30일(토)까지

🍷 고기손님 한정(식사손님 제외) 🍷 테이블 당 1회 🍷 직원 호출 후 진행

문의 02-785-8883 여의도역 5번 출구, 셋강역 1·2번 출구, KBS 별관 옆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4, 호성빌딩 2층



스타벅스, 취약계층 장애인 치과 수술비 1억 지원

스타벅스코리아는 취약계층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치과 수술비 지원 기금 1억원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김영훈 대외협력팀장(왼쪽),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조정한 대외협력실장(왼쪽 가운데), 스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 권순미 점장, 스타벅스 김지영 ESG팀장(오른쪽)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동아에스티-에이아이트릭스, 헬스케어 사업 맞손

동아에스티는 지난 5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의료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아이트릭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왼쪽)과 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NH투자증권, 유엔글로벌콤팩트 리그그룹 등극

NH투자증권이 ESG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의 리그그룹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임철순 NH투자증권 ESG본부 대표(오른쪽)와 이동건 UNGC 한국협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NH투자증권



HMM, 시리아 난민 등 취약계층 국제 구호물품 운송

HMM이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국제 구호물품 운송을 후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국제 구호활동은 국내 인권전문 NGO 기관 휴먼아시아와 함께 진행하며,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 및 취약계층에 방한 의료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HMM



금투협, 칠성부대 방문… 장병 위문성금 전달

금융투자협회는 강원도 최전방 동부전선과 동해안을 책임지고 있는 국군 칠성부대(7사단)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왼쪽부터)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황성영 신영증권 대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7보병사단장, 기동호 코리아에셋증권 대표,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 김정선 한국토지신탁 대표. /금융투자협회



홍경안의
시시일과

지난 4월 17일, 국제적 문화예술 노동자 그룹인 '대량학살 반대 예술 연맹'(Art Not Genocide Alliance, ANGA)은 '대량학살 국가관에 반대한다'는 구호가 적힌 붉은색 전단지를 뿌리며 이스라엘 국가관의 베니스비엔날레 참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나라별 전시장이 밀집해 있는 자르디니(Giardini) 내 일원과 리알토 다리(Rialto Bridge) 등지에서 이뤄진 시위에 앞서 'ANGA'는 지난 2월 이스라엘의 전시 참가 금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청원에는 예술가, 큐레이터, 문화계 인사 등 2만4000여 명이 서명했다.

가자지구 내 주민들을 무차별적

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보이콧(Boycott)은 다른 예술 장르에서도 전개됐다. 전 세계 출판·문학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인종청소'로 규정하며 '이스라엘 출판기관을 통한 공모를 거부한다'는 선언문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영화계도 침묵하지 않았다. 지난 9월 영화인 700여 명은 제81회 베니스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이스라엘 감독 대니 로젠버그(Dani Rosenberg)의 영화 '개와 사람에 관하여'(Of Dogs and Men)에 대해 전쟁의 책임 여부는 외면하면서 이스라엘을 미화한다며 상영 취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지난 달 3일 한국 문화예술인 800여 명 역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된 해당 영화에 대한 상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처럼 국외 미술인들과 국내외 영화계, 문학·출판계 구성원들은 지난 1년간 팔레스타인인 4만여 명을

비롯해 레바논과 이란인 등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해한 이스라엘에 분노하며 다원적 연대를 통해 21세기 제노사이드(Genocide)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이용해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는 이스라엘 문화 기관들의 아트워싱(Art washing)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계는 상대적으로 잠잠하다. 억압에 대한 저항과 민주·평화·비폭력적 가치를 추구하며 1995년 출범한 광주비엔날레가 올해 행사에 역대 최대인 30여 개의 국가관(파빌리온)을 마련하며 이스라엘 문화 기관인 CDA홀론을 포함시켰음에도 소위 지식인이라는 이들조차 끔찍한 전쟁과 광주비엔날레의 위선적 태도를 언여화, 문자화하지 않았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출판·문학계의 선언문을 생각하면 참으로 겹언쩍은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심각한 건 따로 있다. 바로 박양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의 인식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국가 전시가 아니라 CDA홀론이라는 미술 기관에서 하는 전시"라고 했다. "광주비엔날레가 전쟁을 강행하는 나라(이스라엘)의 특별전을 여는 것은 부끄럽다는 비판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왜 비엔날레에 그런 정치적 이념을 대입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비엔날레 공식 보도자료에 이스라엘을 31개의 파빌리온 중 하나로 묶어 발표한 것은 자기 부정이다. 집단학살 방관 기관과 전쟁 미화를 거부한 출판·문학인들, 영화인들은 모두 이념 집단이다. 부정의는 그릇됨과 올바른의 영역이자 양심의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국제 미술행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가장 부끄럽다.

/미술평론가

자동차기자협회 “이달의 차, ‘더 뉴 캐스퍼’”

상품성 6.7점 등 총 31.3점 기록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2024년 11월의 차에 현대차 더 뉴 캐스퍼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자협회 산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출시된 신차와 부분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심사해 이달의 차를 발표한다. 평가는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안전성 및 편의 사양 ▲동력 성능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등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현대자동차 더 뉴 캐스퍼

지난달 선보인 신차 중에 링컨의 더 뉴 링컨 에비에이터, 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 450 d, 현대자동차 더 뉴 캐스퍼(브랜딩명 가나다순)가 11월의 차 후보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더

뉴 캐스퍼가 31.3점(50점 만점)을 얻어 11월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

현대차 더 뉴 캐스퍼는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서 7.0점(10점 만점)을 받았고, 안정성 및 편의 사양,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부문에서 각각 6.7점을 기록했다.

정치연 올해의 차 선정위원장은 "2021년 출시 이후 3년여 만에 선보인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캐스퍼는 SUV의 단단함을 부각하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최신 안전 및 편의 장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코웨이 서장원 대표(왼쪽)가 임직원 자녀와 서울 구로 본사에 있는 '코웨이 생태숲 1호' 현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코웨이, 생태숲 1호 조성

코웨이가 친환경 ESG 활동 일환으로 서울 구로구 본사 지타워 3층 야외 공원에 '코웨이 생태숲 1호'를 조성했다.

6일 코웨이에 따르면 생태숲 프로젝트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산림청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식물을 생태숲에 식재해 야생 동물에게 서식처가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이다.

코웨이 생태숲 1호는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부음

▲이안순(향년 83세)씨 별세, 이수원(두산에너지 플랜트EPC 수석)·이성원(NICE 신용평가 IS실장)씨 부친상, 유근영·정해임씨 시부상, 이주현(셀트리온), 이영욱(원양건축사사무소), 이홍욱씨 조부상 = 5일 오후 8시47분, 부산시민장례식장 401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장지 경북 경산 경맥백합공원. 051-636-4444

▲오영호(향년 89세)씨 별세, 박문수(우먼컨슈머 대표)씨 장인상 = 5일 오후 6시, 서울직적자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02-2002-8444

▲박영길씨 별세, 박용주(울산경제신문 eTV 사장)씨 부친상 = 6일 오전, 창원경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8일 오전 10시. 055-214-1900

대한항공-공군대학, 국방 정책·기술 교류협력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연구

대한항공이 미래 국방 분야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위해 공군대학과 협력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5일 대전시 유성구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에서 공군대학과 '국방정책 및 국방 기술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대한항공과



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오른쪽)과 김일한 공군대학 총장이 MOU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공군대학은 미래 국방에서 가장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공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중심으로 연구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상호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인적자원을 교류하는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은 "점차 복잡해지는 미래 국방 환경에서 공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완성은 매우 중요하며, 공군대학과 같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에이스침대, 침대 부문 품질만족지수 1위

에이스침대가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조사에서 19년 연속 침대 부문 1위를 달성했다.

6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간간한

품질경영 원칙 아래 한국 침대 업계의 과학화를 선도해 왔다.

에이스침대는 올해 '침대=과학'이라는 브랜드 헤리티지를 더욱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

해 디지털 캠페인을 '침대는 왜 과학일까?' 시리즈 영상을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다.

안성호 대표는 "앞으로도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수면 환경을 완성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The buck stops here?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The buck stops here.”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저런 문구가 명패에 새겨져 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이다. 국정 운영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당당함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그러나 지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시정연설도 11년 만에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보내 국정 운영방안을 대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탄핵집회까지 하는 등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시정연설에 갈 수 있겠나”라고 설명했지만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채 상병 사망사건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녹취록 파문 등으로 정치권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혼돈스러운 정국의 중심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한 때 한 숟밥을 먹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의 해명과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을까 싶다.

이런 이슈 가운데 일부는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순전히 법적으로만이다. 법과 ‘민심’에는 괴리가 있다. 법리적으로는 죄가 없어도 심리적·윤리적으로는 죄가 있을 수 있고, 법은 무죄를 선고해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유죄인 경우가 많다. 대통령과 참모진 중에 욕사들이 많아 법적인 유·무죄만 중시하는 건지는 몰라도, 이는 민심을 헤아리는 처사가 아니다.

이런 민심을 야당은 활용하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야권에서 서서히 장외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거야인 민주당은 ‘탄핵’ 얘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이는 ‘아직까지’다. 조국혁신당에서 이미 탄핵 얘기를 꺼내고 있어 민주당이 언제 탄핵 대열에 동참할지는 시간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공세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에도 민주당은 명태균씨의 또 다른 녹취록을 공개했다. 명씨는 증거를 모두 불태우겠다고 했지만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녹취록 공개가 이를 증명해준다. 명

태균 씨를 둘러싼 스캔들이 앞으로 줄줄이 나와 현 정권의 존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 인사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통령 주변 참모들의 ‘정무적 감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지난 4월, 소위 ‘대과 사건’에서도 윤 대통령이 대과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발언했던 건 주위 참모들의 잘못된 정보제공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불참한 것은 결정적 판단 오류였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The buck stops here’가 아니라 ‘Pass the buck(책임은 나에게 없다)’이란 행태만 보여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답을 하겠다고 한다. 이번 기자회견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걸 보여야 한다. 모든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채 정보를 왜곡·제공하는 주위 인물들에 대한 쇄신도 결단해야 한다.

/정치경제부재장 yhj@metroseoul.co.kr

우는 아이 사탕 물리는 서울시 저출생 대책



김 현 정

(정책사회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달 29일 안정적인 주거와 양육자 생활 밀착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하고, 스토드(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를 비롯해 결혼 준비와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결혼 살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총 6조 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적잖은 시민들은 이날 시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을 ‘노답(답이 없는) 탁상행정’

이라고 평가했다.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을 ‘전세 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로 설정해 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에 애 있는 신혼부부가 사는 집 중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가 없을 듯”, “서울에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집이 많지 않다. 이걸 그냥 안 주겠다는 거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인 신혼부부 결혼 살림 비용 지원 정책은 ‘업체 배 물리기’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시가 스토드 비용을 지원해주는 순간 업체에서 100만원을 올려 신혼부부가 내야 할 돈은 똑같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작년 9월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자 관내 산후조리원 10곳 중 3곳 이상(32%)이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산 바우처 지급 전후 서울 지역 산후조리

원의 이용 요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4곳 중 37곳이 이용료를 최소 3%에서 최대 46%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가 ‘숲은 없고 타들어 가는 나무만 보는 정책’, ‘우는 아이 입에 사탕 물리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시는 올 4~8월 연속 서울시 출생아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늘어난 것을 두고 그간 추진한 저출생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출생아수는 1057명. 이와 함께 봐야 할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다. 바로 서울시 자살률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시민은 2165명에 달한다. 돈 몇 푼 쥐여주며 출생아 수를 억지로 늘려놓았다고 한들 산 사람의 행복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면 출생률 증가수치는 의미 없는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hjk1@

오늘의 운세 11월 7일 (음 10월 7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지인의 잔재주에 말리는 투자는 신중. 48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60년생 추락하는 세상에 새로운 날개를 붙일 수는 없다. 72년생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84년생 고난과 시련은 늘 있는 것이다.



소

37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상쾌. 49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니 난감하다. 61년생 양파와의 거래는 잘 살펴야 한다. 73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다음날에. 85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즐겁다.



호랑이

38년생 알아도 모르는 척 실수를 덮어 줄 것. 50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다. 62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해결. 74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다. 86년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토끼

39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51년생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얻는 운이 좋은 날. 63년생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불평하지 말고 공부. 75년생 십 년 묵은 체증이 오후에 해소. 87년생 힘내라는 말을 기대하지 말도록.



양

40년생 이기적인 마음은 실수가 따른다. 52년생 주식투자보다는 집을 사는 것이. 64년생 주황색이 행운을 준다. 76년생 월급 타면 소비보합을 들자. 88년생 부자가 천국으로 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이치가 있다.



뱀

41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53년생 경험은 언젠가 금과옥조를 탄생시킬 것. 65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 77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니 급한 마음을 차분히. 89년생 직장 이직은 비현실이니.



말

42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니 오늘은 거칠 것이 없다. 54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66년생 출퇴근 시간약속을 중시하라. 78년생 명예가 높아지며 기다리던 승진의 선물이 들어온다. 90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현명하게 시작을.



양

43년생 천하를 다 얻은 듯하다. 55년생 명성이 깔렸으니 역량을 발휘해서 미뤄둔 일을 마무리. 67년생 개천에서 용이 난 형국이다. 79년생 꿈은 현실로 이어지며 뿌린 대로 거둬지니 시작하자. 91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원숭이

44년생 사돈과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56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는다. 68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양보이다. 80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생각이 좋아도 허상으로 끝나버린다. 92년생 취미로 인해 가정을 등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닭

45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57년생 내가 믿음을 가져야 남도 설득시킬 수 있다. 69년생 옆 사람에게 충실하. 81년생 즐거움은 작은 동물에게도 있으니 반려아기들을 때리지 말고 키우도록. 93년생 망각의 신이 주신 선물.



개

46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58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노력이 필요. 70년생 꿈이 원대해도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것. 82년생 운명적인 인연이라 해도 일반적 만남일 뿐. 94년생 일이 즐거우니 행복.



돼지

47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 59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니 힘껏 두드려라. 71년생 거품은 사라지고 아쉬움만 남는다. 83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 토지가 비옥해지는 이치. 95년생 연인과 백년가약(百年佳約)의 날을 잡는다.

김상회의四季

우정의 세계



앞서 얘기한 판포지교도 그렇거니와 수어지교(水魚之交)처럼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친구 사이의 우정이 그렇게 생명과도 같은 관계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자의 사자성이 중 지란지교(芝蘭之交)도 있다. 친구 사이가 지초와 난초만큼 향기롭고 맑은 품격 있는 우정을 나눈다는 뜻이다. 지란지교는 공자가 언급한 것으로 공자는 성정이 바른 사람과 같이 하면 마치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가 방안에 함께 있듯 그렇게 서로가 향기롭게 동화됨을 의미함을 말했다는 데서 유래됐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제2의 재산이다”라고도 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자못 진정한 친구가 있어 힘이 되어 주면 삶에 그런 재산이 없을 것이나 만만치는 않음이다.

중국 제자백가 중 도가의 대표적 인물인 장자(莊子)도 이와 유사한 고사가 있다. 하루는 장자가 아들을 불러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되냐고 묻자 아들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대답했다. 이에 장자는 아들에게 말하길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친구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자 아들은 진정한 친구라 생각한 사람들의 집에 시체를 지고 갔지만 모두 외면을 했다. 이에 아들은 당황하였고 이번에는 장자가 자신의 친구 집을 찾아갔더니 장자의 친구는 “우선 이리 들어와 정신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처리하세”라며 받아들였는데 살인은 실재가 아니라 장자가 아들을 가르치려고 한 설정이었고 시체라고 한 것은 갓 잡은 멧돼지였다는 얘기가. 꼭 이와 같은 과장된 설정이 아닐지라도 형편이 좋을 때만 친구인 경우가 우리 인간사에는 허다하다. 영미권에서도 “필요할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라는 속담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4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5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경북 청도·김천 지방소멸대응 우수... 기금 총 1494억 확보

청도군, 활력타운·행복버스 강화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등 좋은평가
김천시, 농촌 인력난 대응 성과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494억원을 확보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분배된다.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계정 7500억원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계정 2500억원으로

돼 있다.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 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광역계정은 인구감소 지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책 할당 된다.

올해는 지자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등급 체계를 S, A, B, C 등급 4단계에서 우수, 양호 2단계로 완 화시켰다.

우수와 양호의 등급 간 배분액 차이는 88억원으로 확대됐다.

경북도는 이에 대응해 경북연구원

과 공동으로 국내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군별 맞춤형 투자계획 사업 발굴과 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았다. 또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내년 시·군 기초기금 투자계획 마련을 지원했다.

경북도는 전국 10개 우수 지자체(감소 지역 8곳, 관심 지역 2곳) 중 청도군과 김천시 2개 시·군이 선정돼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1226억원을 지원받는다.

경북도도 광역계정으로 268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청도군은 청도읍·화양읍 중심부에 조성되는 지역 활력 타운과 대중교통(행복 버스) 순환노선을 중심으로 주

거, 문화, 일자리 3개 요소 기능을 강화하고 청도-경산 대중교통 버스 연계,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등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과 연계해 청년층 수요 욕구를 충족하고 활력있는 콤팩트시 티를 완성하는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천시는 안정적인 외부 인력 유입 기반 조성으로 김천 농촌지역의 인력난과 농업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고 농업 근로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거점형 생활공간 조성으로 근로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해 농가 일손 부족 해소로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가 활력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대구시는 2024년 ABB 분야 유망벤처 기업 6개와 고성장기업 4개를 선정하고, 11월 5일 대구스포츠타운 입지원센터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구시 ABB산업 선도기업 10곳 선정

대구시는 지난해 지역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할 유망 기업 13개를 발굴·지원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올해도 1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13개 기업은 매출이 전년 대비 970억 원에서 1,088억 원으로 12.2% 증가하고, 고용 인원도 921명에서 952명으로 3.4%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다.

선정된 기업들은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R&D 지원과 최대 6천만 원의 비R&D 지원을 포함해, 사업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대구 ABB 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김준환 기자 kih9@

울산시 세계미래박람회서 투자유치

울산시는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 2024(WAVE 2024)'와 연계해 '투자유치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홍보관은 이날부터 8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운영된다.

이번 홍보관에서는 울산의 투자환경과 주력산업, 에너지산업, 미래 신산업 등을 소개한다. 특히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산업수도'로 자리 잡은 울산의 산업 발전 역사를 전시해 미래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린다. 또한 국내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상담이 진행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나주시 여성친화기업에 혜택 지원

전남 나주시가 성평등에 기반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온 기업에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관내 기업인 '㈜쿠로엔시스', '㈜정석푸드나주'를 여성친화기업으로 새롭게 인증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성친화기업은 최고경영층 리더십, 고용평등, 직원 근속 현황, 일-생활 균형지원 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운영 및 교육 여부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한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부산 커피 물류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부산광역시

‘아시아 커피 물류’ 허브 부산 만든다

BICC컨소시엄 등과 업무협약

부산시는 지난 5일 BICC 컨소시엄, 중미2국 커피원과 함께 '부산 커피 물류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부산항이 아시아권 커피 물류 수출의 교두보로서, 부산이 아시아커피 산업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체결 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 시와 BICC 컨소시엄, 중미2국 커피원이다. 중미2국 커피원은 코스타리카 'ICAFFE', 온두라스 'IHCAFE'이다. BICC(Busan International Coffee Consortium) 컨소시엄은 부산 커피 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성된 협력체로, 7개의 지역 기업으로 구성됐다. 강립CSP, 넥센, 부산일보, KNN, 퓨트론, 화승네트웍스, 구아코코리아로 구성된다. 중미2국 커피원은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의 커피 전문기관으로, 부산항을 아시아권 수출커피 물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스타리카, 온두라스는 고품질의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로서, 커피 생산량은 세계 14위, 7위로 자국 커피 수출과 커피 산업의 감동권을 활용해 부산에 안정적인 커피 공급을 지원하고 품종별 로스팅 기술을 지원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광양시,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 주관

광양시에서 '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 수도 전남'이라는 주제로 제1회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전라남도과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양시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수소정책과 전망 그리고 광양만권

수소 운송 인프라 구축과 각종 수소기술 개발 방안을 모색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념사에서 "광양만권 화학·철강 중심 국가산단을 그린산단으로 탈바꿈하고 동·서부권에 조성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와 연계해 청정수소 생산·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경남도, 신재생에너지 공모서 355억 받아

17개 시군서 20개 컨소시엄 선정

경상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 사업'에서 17개 시군의 20개 컨소시엄이 선정돼 총 35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2013년부터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 중 국비는 109억원을 확보해 지난해 대비 39.7%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이 참여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2종 이상을 주택, 공공, 상가 등 건물에 설치·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17개 시군에 355억원을 투입해 주택, 상가, 공장, 공공청사 등 391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에너지 복지가 향상되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7월에는 공개평가를 진행한 후, 10월 25일까지 심층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 규모가 확정됐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의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시군을 방문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기획 작성 방향을 권고하는 등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제철 돌아온 '영덕대게' 올해 첫 위판

영덕군, 마리당 최고가 15만4000원

영덕군은 4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산물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포함해 총 11회에 걸쳐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은 최고의 특산물 영덕대게가 제철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특유의 담백한 맛과 향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특산물 중 하나인 영덕대게가 5개월 간의 금어기를 보내고 지난 3일 강구항에서 올해 처음으로 위판됐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많아 쫄깃한 맛이 특징이며, 필수 아미노산은 풍부한데 지방함량은 적어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대게 조업은 11월 근해에서 시작돼 12월 연안으로 확



'천년의 맛' 영덕대게, 금어기 해제 후 2024년 첫 위판 모습.

장돼 본격적으로 이뤄져 다음 해 5월 까지 이어진다. 살이 꽉 찬 대게는 '박달대게'라 부르는데 박달대게만이 집게다리에 '영덕대게 브랜드 타이'를 두르게 된다. 경매에는 근해대게자망 어선 3척이 참가했으며, 낙찰가는 마리당 기준 최고가 15만 4,000원, 총판매액은 1억 9,885만 원을 기록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트럼프 당선 유력, '트럼프 미디어' 주가 하루 2번이나 거래 중단 급등락 /사진 뉴시스
▲공화 후보 웨스트버지니아주 당선, 상원 다수당에 한 발 가까이

▲'한국 사위' 래리 호건 메릴랜드 상원 의원 낙선
▲정부, IMF 연례협의 실시...경제·정책 전반 논의



▲日, 美차기 정권과도 "협력 관계 구축...미일 동맹, 외교 기축" /사진 뉴시스
▲구글맵 업데이트에 우크라이나 발각...'비밀 군사 기지' 노출돼



쿠팡
3분기 매출 10.7조
분기 최대실적
L1



Life

치킨업계
스타마케팅 치열
소비자 부담 우려도
L2



인천교육청, 내년 예산 5.3조 편성 학교신증설 등 미래교육 환경 전환

올해 대비 1844억 증액... 3.6%↑
미래교육, 무상교육 지원 등 편성
도성훈 교육감 “학생성공시대 앞장”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본예산 대비 1844억 원(3.6%) 증액된 5조 2915억원으로 편성했다.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예산(안) 중 세입 부문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886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950억원, 기타 이전수입 54억원, 자체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52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부문별 세출 예산 현황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5319억 원)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2560억 원)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6403억원)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지원(7085억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 경비 등 기타 경직성경비(3조 1548억원) 등이다

먼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5대 교육정책으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618억원 등 총 5319억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으로 학교신증설 723억원 등 총 2560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에는 여름철 냉방요금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 3% 인상을 반영해 ▲공립학교 학교기본운영비

4007억원 ▲사립학교 사학재정지원 2396억원 등 총 6403억원을 편성했다.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 지원비는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지원 422억원 등 총 7085억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기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 2조 8295억원 등 총 3조 1548억원을 편성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도 예산 편성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기조 아래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했다”라며,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라는 정책 방향을 통해 학생성공시대를 향해 한 단계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서울시, ‘위기 임산부’ 위한 쉼터 10곳 마련

내달 중 전용쉼터 전국 최초 오픈
주거지원 필요한 임산부에 도움

서울시는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용 쉼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올 12월 중 문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지만, 시설 생활이 힘들어 개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가 준비한 위기임산부 쉼터는 총 1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1호당 1가구가 생활하는 방식

이라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1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선정한 위기임산부 쉼터 운영 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운영 기관을 통해 쉼터 보호가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지원한다.

임신으로 고민·갈등 중인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1551-1099)나 SNS(카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를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수능 끝나도 등교... 마약·도박 예방교육

교육부, 학년말 학사운영방안 발표
연말까지 안전 위해 학생 활동 보호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년말 시기를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부터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유연화한다. 다만, 이 시기에도 등교수업이 원칙이다.

교육부는 답페이크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한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매년 학년말 학사 운영 내실화 및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수능을 치른 고교 3학년을 비롯해 전국 일선 초·중·고교는 학년 말에도 등

교 수업이 원칙이다. 실기·면접 및 논술고사 등 준비를 위한 입시학원 수강, 승인받지 않은 체험학습 활동 등의 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마약·온라인 도박·답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교육부가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등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을 돕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학생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년말 생활을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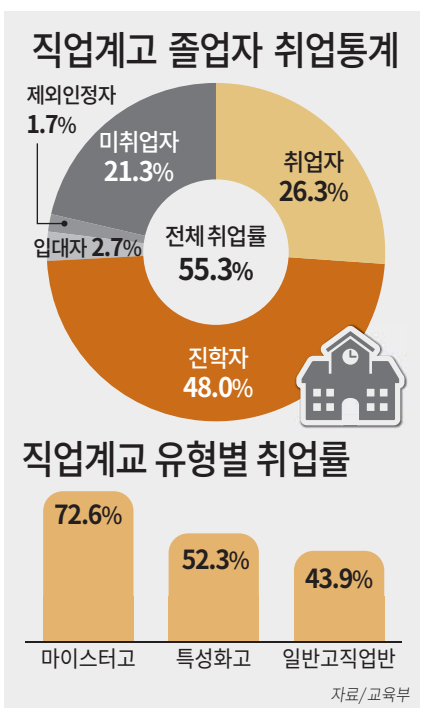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 직장 대신 대학 간다

대학 진학률 48%... 4년 연속 증가
마이스터고 취업률 72.6% 가장 높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생이 취업 대신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4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졸업한 학생 가운데 1년 내 일을 관둔 졸업생은 34%에 달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일 기준 직업계고 577개교의 2024년 2월 졸업자 6만3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는 6만3005명으로 이 중 취업한 인원은 4명 중 1명 꼴인 1만6588명이다. 졸업생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입대한 사람을 제외한 취업률은 55.3%로 지난해 55.7%보다 0.4%p 하락했다.



반면,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택한 비율은 최근 4년 연속 늘었다. 취업 대신

대학에 입학한 인원은 3만216명으로 전체 졸업자 48%를 차지했다. 진학률은 ▲2020년 42.5% ▲2021년 45.0% ▲2022년 45.2% ▲2023년 47.0%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72.6%로 직업계고 중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 52.3% ▲일반고 직업반 43.9%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300명 미만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1000명 이상 23.5% ▲300~1000명 미만 11.0% ▲30~300명 미만 34.5% ▲5~30명 미만 26.1% ▲5명 미만 4.8% 순이다.

취업 후 1년 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을 나타내는 유지취업률은 66.2%(1만2849명)다. 10명 중 3~4명은 1년을 버티지 못한 셈이다. 유지취업률은 전년 대비 0.2%p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현진 기자 lhj@

파주 DMZ, 누구나 즐기는 ‘열린 관광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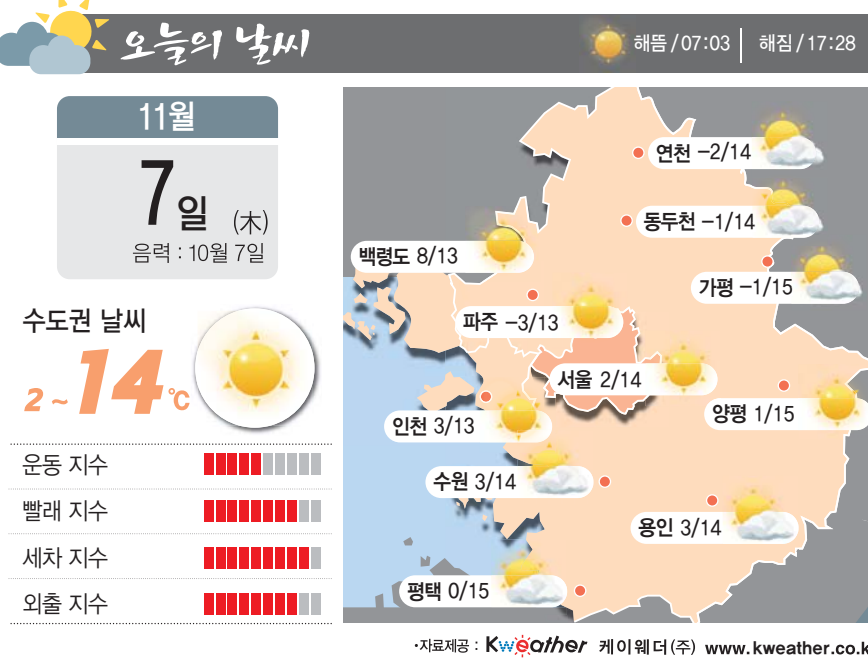
제3땅굴·도라전망대 공모 선정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서 DMZ 관광지인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가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확보된 국비에 시비 6억 원을 추가해 총 11억 원을 들여 관광지의 무장에 접근성을 강화하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 35개 지자체, 86개 관광지가 참여한 공모에서 파주시는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라커룸 파손한 김주형, 오늘 KPGA 상벌위 불출석...소명서 제출
▲허준호 명지대 학생, 전국장애인체전 3년 연속 금메달 /사진 뉴시스

▲류종일 감독 “최종 엔트리 28명 중 마지막 3명 두고 고민 중”
▲ACL2 앞둔 김두현 전북 감독 “절박한 마인드 갖고 싸워야”



▲‘준우승 경쟁’ 김천상무, 포항전 3연승 도전
▲최정이가 쓴 새 역사...FA 사상 첫 누적 총액 300억원 돌파 /사진 뉴시스

SAMSUNG

잘하고 싶어서 작가 기안84도 갤럭시 AI 탭
| 당신의 능력을 높여줄 AI 탭 탄생 |



samsung.com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일부 AI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광고에 활용된 이미지는 AI 기능을 활용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갤럭시 탭 S10 울트라와 삼성노트/S펜으로 작업한 작가 기안84님의 작품입니다.

Galaxy Tab S10 Series
Galaxy AI ✨ is here